

103번 민원 폭탄·형사 고소... 교권 침해에도 도교육청 '뒷짐'

군산중·고교서 103회 민원·고소에
 교장실 난입 등...교사 우울증 호소
 학습권 침해·학사운영 차질 확산
 교육청 소극 대응에 현장 피해 가중

전북 도내 학교 현장이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과 무리한 형사 고소로 마비되고 있다. 정당한 교육활동마저 보복성 민원의 표적이 되면서 교사들의 위축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 침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관할 교육청은 소극적인 대처로 일관해 비판이 일고 있다.

지난 3일 본보 취재에 따르면, 군산 A고등학교는 지난 2024년 1학년 학생들 간 갈등 사안을 교사의 중재와 사과로 자체 종결했다. 그러나 이듬해 특정 학부모 B씨가 돌연 입장을 바꿔 무리한 조치를 요구하며 전북교육청, 교육인권센터 등에 총 103회에 달하는 민원을 쏟아냈다.

B씨는 교장실에 난입해 위협하고 학교

운영위원회 회의를 방해하는 등 심각한 교권 침해를 일삼았다. 이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청은 B씨 자녀를 위해 약 97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등 행정력을 낭비했다.

반면 잦은 조사 속에서 다른 학생들은 불안감을 호소하며 2차 피해를 겪고 있고, 표적이 된 교사들은 극심한 우울증 등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는 실정이다.

학생 지도가 형사 고소로 이어진 사례도 발생했다.

최근 군산 C중학교에서는 체육 수업 중 다른 학생이 찬 공에 맞고 욕설을 한 학생에게, 교사가 공을 패스하며 주의를 주는 과정에서 앉아 있던 학생 허벅지에 공이 맞았다. 학부모는 이를 문제 삼아 교사를 고소했고, 지속적인 민원 제기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다.

상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지만 전북교육청은 방과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쏟아지는 민원에 따른 대면 조사와 감사 통보를 현장에 그대로 떠넘겨 피로도만

가중시켰다.

이에 군산교육지원청은 오는 8일 교권보호위원회를 열고 A고 사안을 심의한다. 이번 심의를 통해 악성 민원에 단호한 제동이 걸릴지 이목이 쏠린다.

전북교육단체총연합회 오준형 회장은 "일부 학부모의 무분별한 악성 민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결국 선량한 대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훼손하는 중대한 교권 침해"라며 "오는 8일 열리는 교보위의 전문성 있고 엄정한 판단과 함께, 도교육청과 교육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악성 민원 차단 시스템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전북교육인권센터 관계자는 "지난달 28일자로 제2기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며 1기 때와 달리 현장 교원의 비중을 20% 이상으로 확대했다"며 "현장 이해도와 전문성이 높아진 만큼, 앞으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해 더욱 합리적이고 정확한 판단이 내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성민 기자



제58주년 예비군의 날 기념행사. 전북도는 지난 3일 도청에서 '제58주년 예비군의 날'을 맞아 노홍석 행정부지사, 문승우 도의회 의장, 김광석 제35사단장 및 군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사진=전북자치도>

김관영 지사, 제명 효력정지 신청...정면 대응

당 잔류 의지 "마지막 몸부림"
 "책임 내가 져" 청년 징계 비판
 한병도 원내대표 "쉽지 않을 것"
 인용 회의적 입장선 그어



김관영 지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3일 '민주당의 제명 결정'과 관련, "어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명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사랑하는 민주당에 남기 위한 마지막 몸부림이자, 도민과 함께 만든 성과와 전북의 자존심을 지켜야 한다는 간절함"이라며 가처분 신청 접수 이유를 밝혔다.

이어 "함께 했던 청년들에게는 잘못이 없다"며 "음주운전을 걱정해 제가 준 대리기사비를 받았지만, 문제를 인지하고 곧장 되돌려준 청년들"이라며 청년들에 대한 민주당의

징계를 지지했다. 그러나 "68만 원 제명에 이어 2만원, 5만원으로 청년들까지 문책을

인용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선을 그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현장의"에 출연해 "본인이야 하고 싶은 말이 있었지만 절차에 따라 징계를 할 것"이라며 "과정상 하자가 없어 가처분은 인용되기 쉽지 않아 보인다"고 선을 그었다.

한 원내대표는 "핵심 문제가 아니다. 5만 원이든 50만 원이든 그 행위 자체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며 "또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징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승래 사무총장도 "부적절하고 불법적인 현금 살포 행위가 있었고 CCTV도 존재한다"며 "가처분 신청은 개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지만 전북을 대표하는 도지사이자 공직자 중 한 명이었던 사람으로서 반성과 성찰의 기회를 갖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특교세 90억 확보...우기 전 정비 나서

여름철 자연재난 대비 교부세 확보
 하천 정비 47억 투입 침수 위험 해소
 빗물받이 정비 24억 도심 침수 차단
 취약시설 18억 투입 체감 안전 강화

전북도가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비해 특별교부세 90억 6,000만 원을 확보, 재해 취약시설 정비에 본격 나선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는 기후위기로 집중호우와 태풍의 강도 및 빈도가 증가하는 상황에 대응해 사전 예방 중심의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우기 이전 주요 위험요인을 선제

적으로 정비·제거해 재해 발생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예방 대응력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중소하천 준설 및 정비 13개소에 47억 6,000만 원을 투입해 범람 및 침수 위험이 높은 지방하천·소하천·세천 구간의 통수 단면을 확보한다. 노후 제방과 호안, 홍수방어시설을 보수·보강해 하천의 치수 기능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 14개 시군 빗물받이 정비 사업에 24억 1,000만 원을 배정해 빗물받이 준설 및 노후시설 정비를 추진함으로써 강우 시 원활한 배수를 유도하고 도심 침수를 사전에 차단한다.

'우리 동네 풍수해 안전망 확충 사업' 24개소에는 18억 9,000만 원을 투입해 붕괴

위험이 있는 소규모 석축, 옹벽, 배수로 등 생활권 주변 재해 취약시설을 정비하여 주민 체감 안전도를 높일 방침이다.

도는 재원의 신속 집행을 통해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 기간(5월 15일~10월 15일) 이전에 주요 예방 조치를 완료하고 시군과 협력한 상시 대응체계를 구축해 재난 대응 역량을 한층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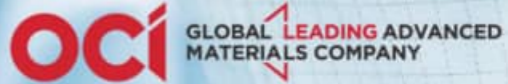
오택림 전북자치도 도민안전실장은 이에 대해 "재난은 사전 예방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며 "확보된 예산을 조기에 집행해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 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세상에 가치를 더+하는 핵심소재 기업

OCI는 기초화학,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에서 새로운 세상을 열고,
 사회에 가치를 더하는 글로벌 핵심소재 기업으로 거듭나겠습니다.



道, 유기동물 보호 강화...동물보호센터 전수점검

30일까지 도내 23개소 합동점검 시설·운영 기준 준수 여부 확인 위생 관리·치료 상태 등 점검 입양 지원 등 35억 투입 병행

전북도는 오늘부터 오는 30일까지 약 4주간 도내 동물보호센터 23개소를 대상으로 운영상태 전수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유실·유기동물 구조와 보호를 담당하는 동물보호센터의 관리 체계와 사육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 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각 지자체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유실·유기동물의 구조 및 보호를 위해 동물보호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현재 도내 동물보호센터는 정읍·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 등 지역 6개소와 전주·남원·고창의 동물병원형, 군산·익

산·김제·임실·부안의 단체·법인형 위탁시설 17개소 등 모두 23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번 점검은 도와 시·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며 주요 점검 내용은 ▲동물보호법에 따른 시설 및 운영 기준 준수 여부 ▲보호동물의 개체관리 및 질병 치료 등 위생적 보호 상태 ▲유기동물의 구조·포획, 보호,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청구의 적정성 등이다.

도는 점검 결과 운영상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이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후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다.

특히 동물보호법상 지정 기준 미준수, 보호비용 부정 청구, 동물학대 등 위법 사항이 적발될 경우 고발 조치와 함께 보호센터 지정 취소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도는 점검과 함께 유실·유기동물 보호 여건 개선과 입양 활성화 지원도 병



<자료사진>

행한다. 올해는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 구조 및 보호비용 지원, 구조장비 및 사후관리 지원, 동물보호사업, 민간 동물보호시설 환경개선 지원, 동물보호센터 건립 등 6개 사업에 총 35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민선식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

국장은 "이번 전수 점검을 통해 도내 동물보호센터의 운영 환경이 한층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통해 유실·유기동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전북개발공사, 고창 덕산 공공분양 본격화

민간사업자 선정·협약 체결 총 888세대 2029년 준공 목표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고창 덕산 도시개발구역 공동주택 부지에 추진하는 고창 덕산 공동주택(분양) 건립사업의 민간사업자를 지난 2월 12일 공모를 통해 선정하고 지난날 31일 협약을 체결했다.

고창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특화 설계와 입주인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고창군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객 맞춤형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금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분양아파트의 규모는 BL2 357세대(전용84㎡(구 33평형) : 180

세대, 전용104㎡(구 41평형) : 101세대, 전용125㎡(구 48평형) : 76세대)와 BL3 531세대(전용84㎡(구 33평형) : 531세대)로 인근에 학교, 관공서, 터미널, 공원, 도서관, 병원, 읍사무소, 고수농공단지, 고창신활력산업단지 등이 위치하여 탁월한 주거여건을 갖춘 위치에 건립할 예정이다.

고창의 특색을 반영한 지역특화 설계와 입주인 주거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엄격한 품질관리를 실시할 계획이며 고창군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고객 맞춤형 공공분양아파트를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개발공사(사장 김대근)는 금년에 활력을 불어넣어 지역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공분양아파트의 규모는 BL2 357세대(전용84㎡(구 33평형) : 180

전북도 아동수당 확대...만 9세 미만까지 지원

매년 단계별 연령 확대 추진 지역별 차등 지급 최대 월 13만원 종료 아동 1~3월분 소급 지급

전북도는 이달부터 아동수당 지급 대상 만 9세 미만까지 확대하고 지역별 추가 지원과 함께 기존 지급이 종료된 일부 아동에 대해서는 1~3월분 소급 지원을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확대 지원 연령이 기존 만 8세 미만에서 만 9세 미만으로 상향되며, 올해 도내 수혜 대상은 약 7만 7,000여 명

에 이른다. 향후 매년 1세씩 단계적으로 확대돼 2030년에는 만 13세 미만까지 지원 범위가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지역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기본 10만 원에 추가 지원을 더해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비수도권 지역은 월 10만 5,000원, 정읍·남원·김제 등 인구감소지역 우대지역은 월 11만 원, 진안·무주·장수·임실·순창·고창·부안 등 특별지역은 월 12만 원이 지급된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월 1만 원이 추가돼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된다.

이미 아동수당 지급이 종료된 2017년 1월생부터 2018년 3월생 아동에 대해서는 올해 1~3월분 수당을 소급 지원한다. 해당 대상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지급되며, 보호자에게는 문자 안내를 통해 절차가 안내된다.

다만, 주소나 계좌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변경 신청이 필요하다.

도내 아동수당 지급률은 지난해 기준 97.8%로 대부분의 가정이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주·군산·

익산 등 주요 시 지역뿐 아니라 농산어촌 지역에서도 높은 지급률을 유지하며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도는 이번 사업을 통해 아동 양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역 간 여건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으로 균형 있는 복지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미숙 전북자치도 여성가족과장은 "아동수당 확대와 소급 지원이 양육 가정의 실질적인 부담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군과 협력해 안내와 행정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송영길·김용 공동후원회장 영입

대선 인사 합류 '친명 연대' 구축 정부 직결 소통 채널 확보 강조

전북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안호영 의원은 지난 3일 경선 후보 캠프의 후원회장으로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영입되었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두 인사는 이재명 대통령 당선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수행하며 정치·정책 전반에서 긴밀한 신뢰를 구축해 온 인물들이다. 이번 영입은 단순한 지지를 넘어, 이재명 정부와 직결되는 정책·정치 연대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이번 인선은 전북 정책을 국가 사업으로 연결하고,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선택이다. 안 의원은 "전북의 미래는 중앙과의 협력 속에서 결정된다"며 "대통령과 직결되는 정책 소통 채널을 확보한 만큼,



안호영 의원

전북 발전의 새로운 계기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북을 이재명 정부 정책의 핵심 실행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치와 정책이 함께 움직여야 한다"며 "이번 인선은 이재명의 정책과 실행력을 전북에 연결하기 위한 전략적 결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 전북 도정은 개인이 아니라 팀으로 운영해야 한다"며 "정치적 리더십과 정책 실행력을 갖춘 인물들과 함께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번 인선을 계기로 전북을 국가 전략 산업과 정책이 구현되는 핵심 거점으로 도약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서울=김영목기자

민주 48%·국힘 18%...지지율 격차 30%p

민주 상승·국힘 하락...격차 확대 중도층 민주 53%...솔림 뚜렷 지방선거 '여당 우세' 46%

[한국갤럽] 조사에서 국민의힘의 지난주 지지율이 지난주에 이어 10% 선을 유지하는 등 10%후반대 박스권에 들어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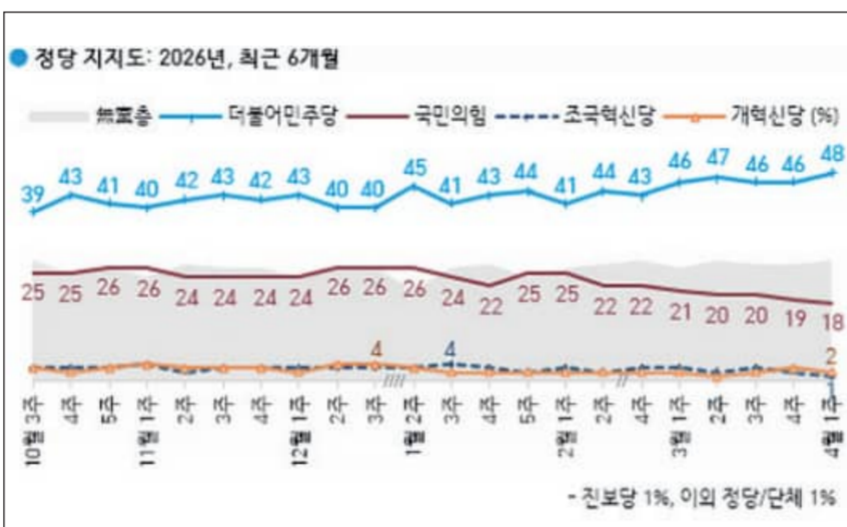
지난 3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성인 1천1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48%, 국민의힘 18%, 개혁신당 2%, 조국혁신당, 진보당, 이외 정당/단체 각각 1%, 지지하는 정당 없는 무당(無黨)층 28%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전주보다 2%포인트 올라 이

재명 정부 출범 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추가 하락해 전주 세웠던 최저치를 경신했다.

작년 8월 중순부터 민주당 지지도 40% 내외, 국민의힘 20%대 초중반 구도가 지속되다가 최근 한 달여 사이 양당 격차가 좁혀졌다.

성향별로는 진보층의 77%가 더불어민주당, 보수층에서는 46%가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중도층에서는 더불어민주당 53%, 국민의힘 10%, 특정 정당을 지지하지 않는 유권자가 33%다. 중도층이 국민의힘을 완전히 외면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을 제외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크게 앞섰다. 호남에서의 정당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 77%, 국민의힘 3%, 조국혁신당 7%



<전북타임스>

당 77%, 국민의힘 3%, 조국혁신당 7%

6.3 지방선거에 대해서 '여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46%,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29%로 나타났다. 양론 격차는 작년 10월 3%포인트에서 올해 1월 10%포인트, 이번 4월 17%포인트로 더 커졌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는 전주보다 2%포인트 높아진 67%, 부정평가는 2%포인트 낮아진 22%였다. 11%는 의견을 유보했다.

이 대통령에 대한 긍정평가는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성향 진보층에서 90%대, 부정평가는 국민의힘 지지층(62%)에 많다. /서울=김영목기자

중도층은 74%가 긍정적, 16%가 부정적이며 보수층은 긍·부정(47%:44%) 비등하다. 연령별 직무 긍정률은 40~50대에서 80%를 웃돌고, 20대에서 47%로 가장 낮다.

이번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3.1%, 응답률은 12.3%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서울=김영목기자



선거홍보물! 인쇄물이 아니라!


당신을 위해

가장 먼저 준비 해야 할 전략입니다.


선거 준비는 빠를수록 유리 합니다.

홍보물의 완성도가 후보의 첫 인상을 결정 합니다.


6.3지방선거 ONE-STOP 선거 홍보 제작팀




Tel_063.226.5888
E-mail_jhchoi3075@daum.net



Tel_063.254.0056~7
E-mail_hi056@hanmail.net



Tel_063.251.0987
E-mail_ap0987@daum.net



전주 동부권 개발 핵심축 '전주역세권 개발' 급물살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주역세권 개발' 지구계획 승인 신청

전주 동부권 개발 핵심축인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마지막 행정절차에 돌입했다. 전주시는 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전주 동부권 지도를 바꿀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인 '전주역세권 개발사업'이 행정절차의 마지막 관문에 들어섰다. 또 지난 3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한 데 이어, 지난달 국토교통부 등에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출됐다. 이에 필수 행정절차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전주시민 의견 수렴 자리가 마련된다. 사업시행자인 LH는 6일부터 오는 5월 6일까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공람 공고를 실시하고 오는 14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사업 계획과 환경 대책 등을 상세히 설명할 예정이다. 시는 공람 공고 게시 및 장소 협조 등 행정적 지원을 통해 주민 소통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어 올해 LH가 신청한 지구계획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게 되면, 전주역세권 개발은 실질적인 실행 단계로 진입한다. LH의 사업 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2027년부터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손실 보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며, 이후 단계 조정 공사를 거쳐 오는 2034년 준공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이 추진된다. 특히 전주역세권은 단순한 주거 단지를 넘어 ΔKTX 전주역과 연계한 복합 환승 인프라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맞

춤형 임대주택 △상업·업무·문화가 어우러진 복합 거점으로 조성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시는 그동안 서부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됐던 동부권 경제 지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는 복안이다. 현재 추진 중인 '전주역 증축 사업'과 시너지 효과를 내, '전주형 균형 발전' 상징적인 모델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전주시 관계자는 "2034년 준공까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덕진구 '사회복지 유공시민' 표창장 수여

전주시은성교회 김승환 목사 전북한우협동조합 김희동 조합장다농마트 이동호 대표 선정

히 기부해왔다. 또한 다농 L마트 이동호 대표는 2013년부터 2022년까지 9년간 백미 10kg 2007포를 기부하고,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현금 1천만원, 2025년에는 현금 1천200만원을 기부하는 등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해 '사회복지 유공시민'으로서 공로를 인정받았다. 더불어 수상자들은 △취약계층 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 복지 공로를 인정받았다. 수상자들은 "작은 나눔이지만 지역사회에 도움이 될 수 있어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덕진구 유공시민 표창식은 '서로를 격려하고 나눔의 의미를 되새기는 뜻깊은 시간'속에 마무리됐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은성교회 김승환 목사 전북한우협동조합 김희동 조합장다농마트 이동호 대표 선정

먹거리통합지원센터·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건립 '첫 삽'

3일 전주시 공동 착공식 개최 미래 농업 새 도약 신호탄 도시농업 클러스터 핵심 기반

전주시가 농산물 안정적인 판로 확보 및 고부가가치 창출 위한 핵심 거점시설 구축에 착수했다. 전주시는 지난 3일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의 핵심 거점이 될 '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전주시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 공동 착공식을 가졌다. 행사는 시가 직접 추진하는 '미래 농업 클러스터 조성' 사업 출발을 알리는 신호

탄이다. 지역 농산물 유통·가공 핵심 시설 확보를 통해 지역 농업 산업화와 경쟁력 강화를 이끄는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가운데 '전주시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도도동 491-4번지 일원에 오는 2027년까지 국비 15억6000만원과 도비 10억원을 포함해 총 90억원 사업비가 투입돼 지상 2층, 연면적 2936㎡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먹거리통합지원센터는 저온저장고와 소분·포장시설, 물류 공간 등을 갖춘 통합 물류 거점으로 기능하게 된다.

현재 월드컵경기장 내 위치한 공공급식지원센터를 이전·확대 운영함으로써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전반에 안전한 지역 농산물을 공급하는 '전주푸드' 핵심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또 농산물종합가공지원센터의 경우 도도동 488-2번지 일원에 총사업비 24억6800만 원을 투입해 지상 1층, 연면적 411㎡ 규모로 건립된다. HACCP 기준을 적용한 가공시설과 교육장을 갖추고 내년 상반기 개관 예정인 이 센터는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잼과 주스, 분말 등 다양한 가공 상품

으로 개발·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농산물 부가가치를 높이고 농업의 산업화를 촉진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시는 앞으로 국제 분장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중동발 환위험 속 지역기업 지키기 나서

3일 환율 변동성 확대 대응 외환 세미나 개최

전주시가 미국·이란 전쟁에 따른 중동 정세 불안과 환율 변동성 확대에 대응해 지역 수출기업 안전한 외환거래를 돕는다. 시는 지난 3일 캠퍼스호텔에서 전북지역 수출기업 대표와 임직원 등 40여명을 대상으로 '국제정세 변화 대응을 위한 외환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는 최근 미국·이란 전쟁으로 인

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커지고 환율 변동성이 확대된 가운데, 수출입 대금 결제와 해외송금, 외화 자금 운용 등 외환거래 부담과 경영 불안이 커진 지역 기업들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행사는 시와 하나은행이 협력했다. 행사에서는 △2026년 외환시장 전망 △환리스크 관리 방안 △수출입기업 지원사업 △무역보험공사 지원제도 안내 등 외환 실무에 직접 도움이 되는 내용이 중점 다뤄졌다. 특히 이날 참석자들은 급변하는 국제정세 속 외환시장 흐름과 환율 변동 위험

을 점검하고, 손실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관리 방안과 금융·보험 지원제도 등 실질적인 대응 정보를 공유받기도 했다. 시는 앞으로도 국제 분장과 글로벌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 등 대외 위험 요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보 제공과 맞춤형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중동정세 불안 대응 공공청사 에너지절약 실천 강화

시민 자발적인 참여 유도

전주시가 중동발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로 했다. 시는 최근 중동지역 정세 불안에 따른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과 수급 불안정 우

려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청사를 중심으로 에너지절약 실천을 강화함으로써 전력 수요 분산과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에 기여할 계획이라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청사 내 불필요한 전력 사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심시간 및 근무 외 시간에는 사무실 조명을 철저히 소등하고, 복도 및 공용공간 조명을 밝기를 낮춰 운영할 예정이다. 또 승강기 이용에 따른 전력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저층(1~3층) 이동 시에는 계단 이용을 권장하고, 별관의 경우 사무공간이 없는 14층과 15층에 대해 평시 승강기 운영을 제한하는 등 시설 운영 효율화 도 함께 추진할 방침이다. 특히 시는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개인용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피해 전력 사용을 분산하는 등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청사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유도하기 위해 개인용 전열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하고, 전력 사용이 집중되는 시간대를 피해 전력 사용을 분산하는 등 일상 속 에너지 절약 실천을 강화하기로 했다. 시는 앞으로 청사별 에너지 절약 실천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적인 에너지 절감 방안을 발굴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주시 인후3동행정복지센터>

전주 인후동, 익명기부자의 따뜻한 22번째 나눔

성금과 함께 손편지 전달 저소득 아동·청소년 지원

있어 훈훈함을 더했다. 인후3동은 그동안 기부자의 뜻에 따라 저소득 아동·청소년 가구에 실질적인 복지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 인후3동은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17가구에 각 30만원씩 지원한 데 이어 지난달 수확여행 경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 가구에 30만원을 전달했다. 조정관 인후3동장은 "기부자의 소중한 마음이 아이들의 든든한 발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익명의 기부자가 지난 2일 인후3동 행정복지센터에 성금 35만원을 기탁했다. 익명의 기부자 기부는 2024년 6월 첫 나눔을 시작한 이래 벌써 22회째이다. 그동안 익명의 기부자가 전달한 누적 성금은 총 742만원에 달한다. 성금과 함께 전달된 편지에는 울 한 해를 응원하는 격려의 메시지가 담겨

전북 3월 기온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 1.4배 많아

전주기상지청, 전북 3월 기후 특성·원인 분석 결과 발표

전주기상지청(지청장 신인성)은 2026년 3월 전북특별자치도(전북)의 기후 특성과 원인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3월 전북 평균기온은 6.9℃로 평년(6.7℃)보다 1.2℃ 높았다. 3월은 다른 달에 비해 기온 상승 추세가 가장 강한다.

2018년부터 9년 연속 평년보다 높은 기온이 이어지면서 3월의 뚜렷한 온난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3월 상·중순 기온이 평년 수준을 유지한 것은 북대서양에서 기인한 중위도 대기 파동 강화와 캄차카반도 부근의 블로킹 발달이 각각 기온 상승과 하강 요인으로 함께 영향을 주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월 23~24일 3월 26~29일에는 이동

성고기압 영향으로 맑은 날씨에 낮 동안 햇빛이 더해지면서 최고기온이 평년 대비 크게 올라 전북 대부분 지역에서 이상고온이 발생했다. 올해 전주 낮누가 개화일은 평년(4.3)보다 6일 빨랐고, 작년(3.27)보다 1일 늦었다. 3월 전북 강수량은 76.5 mm로 평년(53.8 mm) 대비 1.4배 수준으로 평년보다 많았고, 작년(38.4 mm)보다 38.1 mm 많았다.

지난 1월과 2월에는 강수량이 평년 대비 적었으나, 3월에는 두 차례 많은 비가 내리면서 강수량이 많았다. 강수일수는 7.0일로 평년(8.6일)보다 1.6일 적었다. 신인성 전주기상지청장은 "전주기상지청은 철저한 기후 감시와 신속한 정보 제공으로 이상기후에 대한 선제적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도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2026년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 실시

배출량 산정 및 시스템 사용 방법 사업장 지원 교육

전북지방환경청은 4월부터 도내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을 대상으로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는 사업장의 자발적인 화학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매년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기·수계 등으로 배출되는 화학물질

현황 등을 사업자 스스로 정확하게 파악하여 보고토록 하는 제도이다. 도내 대상 사업장 예상 목록에 포함된 사업장(약 1046개소)은 '화관법 민원 24'(https://icis.me.go.kr/cdms/)에 접속해 금년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대상에 해당될 경우 2025년 한 해 동안의 화학물질 취급량(제조·사용), 대기·수계·토양으로 배출된 양, 폐기물과 폐수 등에 포함되어 위탁 처리업체를 통해 외부로 이동된 양 등을 포함한 조사표를 4월

30일까지 작성·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조사표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하는 경우 행정처분과 과태료 부과 대상에 해당한다. 전북지방환경청은 사업장의 조사표 작성을 지원하기 위해 다가오는 4월 10일 14시에 전북대학교 공대 8호관 205호(전북녹색환경지원센터 대회의실)에서 배출량 산정·보고 방법, 화관법 민원 24 시스템 사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부득이하게 교육 참석이 어려운 사업장에서는 화학물질안전원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온라인 강의(유튜브)를 수강하거나, 중소(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오프라인 실습형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사업장에서 제출된 조사표를 토대로 전북지방환경청과 화학물질안전원의 보완·검증 등을 거쳐 2025년 배출량 조사 결과가 확정되고, '화학물질 배출·이동량 정보시스템'에서 연도별·지역별·업체별 배출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도전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수험생 응원꾸러미 전달

년들에게 영양 보충 및 정서적 안정 돕기에 중점을 두고 청소년들을 응원했다. 앞서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들의 지속적 학업 위한 멘토링 수업 △온라인 강의 △검정고시 교재 등 맞춤형 교육서비스를 제공해오고 있다. 한편 전주시 꿈드림은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 심리상담·교육·지원·복지·문화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아울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전문기관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고민상담·학업부기 및 사회진입 등 건강한 성장 위한 단단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학교 밖 청소년 검정고시 도전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가 응원에 앞장서고 있다. '2026년 제1회 중·중·고 졸업 학력 검정고시'가 지난 4일 전주기전중학교에서 치러졌다. 이날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검정고시에 응시한 학교 밖 청소년 100여명을 대상으로 점심도시락과 함께 응원 물품 등을 지원했다. 응원 물품은 △점심도시락 △문구류 △체벌 배출량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긴장감 속에 시험을 치르는 청소년

김종훈 경제부지사, 고산농협 농산물 유통 점검

농업 현장 대응 상황 확인 및 애로사항 청취 “농가 지원 강화하겠다”

전북도는 지난 3일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완주군 고산농협 산지유통센터를 방문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 실태를 점검하고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가 운영 중인 ‘비상경제대응TF’의 일환으로, 중동 정세 등 대외 여건 변화에 따른 지역경제 영향을 최소화하고 농업 현장의 대응 상황을

직접 확인하기 위해 마련됐다. 고산농협은 2025년 기준 382농가(374ha)와 계약재배를 통해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유통하고 있으며, 전체 유통량의 절반 수준인 3,003톤을 학교급식과 서울 친환경유통센터 등에 공급하고 있다.

공공급식과 연계된 안정적 수요를 기반으로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이 확대되는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날 김 부지사는 산지유통센터 운영 현황과 선별·포장·출하 등 유통 전반을 점검하고,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의 비용 부담과 애로사항을 집중적으로 살폈다. 아울러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확대해 이어 경축순환자원화센터 찾아 친환경

농업 기반 확대를 위한 자원순환 체계 운영 상황도 함께 확인했다.

현장에서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이 최고가격제 시행 이후에도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비료와 포장재 등 농자재 가격 상승까지 겹치면서 시설재배 농가를 중심으로 생산비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어려움으로 제기됐다.

이에 도는 농업용 면세유 가격안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유가연동 보조금 지원 확대를 정부에 건의하는 등 농가 경영 부담 완화 대책을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현장 점검과 모니터링을 확대해 피해 상황을 신속히 파악하고 관계기관

과 협력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는 그동안 친환경 농업 활성화를 위해 소득보전 직불금, 생산비 절감 지원, 학교·어린이집 급식 연계 등 공공소비 확대 정책을 추진해 왔으며, 유통·마케팅 지원을 통한 판로 다변화에도 힘써왔다.

김종훈 전북자치도 경제부지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친환경 농산물 생산과 유통을 이어가고 있는 농가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안정적인 판로 확대와 농가 소득 증대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정정철 기자

전북도, 158억원 투입해 에너지 복지 확대

2625세대에 도시가스 공급

전북도는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연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 설치비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총 158억원을 투입해 전주, 군산, 익산 등 9개 시군 24개소에 32.6km 규모의 공급관을 설치하고, 2625세대를 대상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다.

도는 도시가스 보급률을 전국 평균 수준(84.8%)까지 끌어올리고, 에너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들의 생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을 지속 추진해오고 있다. 특히 도시가스 공급 기반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해 지역 간 에너지 격차 해소와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지난해 9월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12월 예산을 확보하는 등 사전 준비를 완료했다.

현재 도비 보조금 교부 등 행정 절차를 신속히 추진 중이다. 아울러 도시가스 사업자와 협력해 연내 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정부의 에너지 안전 및 복지 강화 정책에 부응하는 중요한 사업”이라며 “유가 상승 등으로 도민 부담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도시가스 설치비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생활비 절감 효과를 높이고, 보편적 에너지 복지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익산 기업 글로벌 경제 위기 선제적 대응

선도기업 지역 대표자 협 기술력·노하우 공유

전북테크노파크(원장 이규택)가 전북특별자치도 ‘선도기업 육성사업’ 일환으로 ‘2026년 제3회 선도기업 지역 대표자 협의회’ 지난 3일에 개최했다.

익산 지역 기업의 현장 목소리를 듣고 글로벌 경제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 밝혔다.

협의회는 익산 지역 선도기업 대표자,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테크노파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유패스소재의 생산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지역 우수 기업의 기술력과 제조 노하우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의에는 최근 중동 정세 확산으로 인해 도내 기업들이 직면한 원자재 수급 불안 및 물류 리스크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참석 기업들은 △핵심 원자재의 공급망 단절 우려 △유가 및 원자재 가격 변동성 확대 △수출 물류비 상승에 따른 수익성 악화 등 국내 기업들이 공통적으로 겪고 있는 실질적인 고충을 토로하며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이번 협의회에서는 익산 국가산단 및 일반산단을 중심으로 형성된 자동차 부품, 화학, 정밀 기계 등 전통 제조 산업의 고도화 방안이 중점적으로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지역 내 밀집된 제조 기반 기업들 간의 기술 융복합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스마트 공정 도입 및 친환경 제조 기술 공유 등 미래형 제조 생태계 조성 위한 실질적인 협력 체계 구축에 뜻을 모았다.

이에 전북테크노파크는 중동 사태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원자재 수급 이슈 발생 시 신속한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 체계를 안내했다.



<사진=전북테크노파크>

또 2026년도 익산 지역 교류회 운영 활성화 방안을 비롯해 선도기업 육성사업의 주요 고도화 전략을 설명하며 기업들이 대외 변수에도 흔들림 없이 성장할 수 있는 지원 대책을 논의했다.

전북테크노파크는 익산 지역 기업들이 겪는 현장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하고, 산업 정보의 실시간 공유를 통해 기업들이 글로벌 불확실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밀착형 네트워킹 지원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김영태 기자

국민연금, 국내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착수

예년 대비 규모 대폭 확대 23일까지 접수·6월 선발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성주) 기금운용분부는 국민연금 기금의 대체투자에 대한 효과적 집행과 수익성 제고를 위해 국내 벤처펀드 위탁운용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통상적으로 연간 2000억원 이내의 자금배정이 이뤄졌던 예년 대비, 국민성장펀드 출범 등 개선된 벤처기업 투자환경을 감안해 규모를 대폭 확대했다.

또 국민연금은 그간 벤처투자업계의

지속적인 건의사항이었던 ‘핵심운용인력 겸업 기준 완화’에 대해 적극 수용했다.

이는 국민연금이 국내 벤처투자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보인 것이다.

이번 위탁운용사 선정은 이날부터 이달 23일까지 관련 제안서 등을 접수 받은 후 내부 심사 및 현장 실사를 통과한 후보 기관을 대상으로 위탁운용사 선정위원회 기술 심사를 거쳐 6월 중 최종 선발할 예정이다.

국민연금공단 서원주 기금이사는 “이번 벤처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을 통해 국민연금 기금의 대체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와 장기적 수익성 및 안정성



<사진=국민연금공단>

제고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가축분뇨 퇴액비 활용 지원 확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지난 3일 김경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 주재로 농촌진흥청(이하 농진청), 지방정부 등과 함께 중동정세 장기화로 인한 비료 원료 수급문제 대응 및 농가경영부담 완화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각 기관별로 원료를 전적으로 수입하는 무기질비료 의존도를 낮추고, 가축분뇨 활용도를 높이는 등 우리 농업체질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농식품부는 ‘농업e지’를 활용해 180만 농업인에게 SMS(카카오톡)를 보내 개별적으로 비료처방 활용 서비스를 지원하고, 지방정부와 함께 3,562개 읍·면·동 단위 적정시비 권고 방안을 제공한다.

아울러 농식품부 유튜브(‘농러와 tv’)를 통해 적정시비 효과 등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또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적정 시

비 기술 보급 및 교육을 강화한다. 농촌진흥청에서 적정 시비 기술 매뉴얼을 제공한다.

아울러 비료를 적게 사용한 저단백질의 고품질 쌀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공공비축미곡 매입 시 우대하는 방안과 미곡종합처리장(RPC) 대상 쌀 산업 기여도 평가 시 관련 평가 지표 배점 상향 및 우대 자금 배정 등도 적극 검토해 추진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김경욱 농산업혁신정책실장은 “적정시비 및 축분 퇴액비 효과분석 등 과학적 입증을 통해 무기질비료 시비량 절감에도 생산성이 유지된다는 것을 농가가 인식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국내에서 생산되는 가축분뇨를 거름으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무기질비료 수입의존도를 낮추고 국내 농지 토양환경개선을 도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한농대 ‘자산맛 사업’ 주관기관 선정

농생명 분야 신성장 산업 창업 전문인력 양성

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이주명, 이하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는 ‘2026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사업’(이하 자산맛 사업) 주관기관으로 선정됐다.

자산맛 사업은 고용노동부와 전북특별자치도(이하 전북도)가 주관하는 농생명 분야 신성장 산업의 창업 전문인력 양성 위한 사업이다. 주관기관 선정은 전북도 내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만 선정됐다.

특히 한농대 창업보육센터 자산맛 사업 주관기관 선정은 한농대의 농생명 분야 창업지원 역량과 현장 중심의 교육 운영체계를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한농대는 농생명 분야의 전문성과 창업지원 인프라를 바탕으로 예비 창업자 발굴부터 교육, 사업화 지원까지

연계하는 실전형 창업 지원체계를 운영할 계획이다.

한농대 창업보육센터는 지난 3월 2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25명의 창업 전문인력 양성과정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

선발된 교육생은 4월부터 12월까지 9개월 간 창업가 양성교육(이론·실습)과 지원프로그램 등 농생명 산업 창업 실무 교육을 받게 된다.

또 한농대에서는 교육 이후 교육생에 대한 평가를 통해 11명의 우수 교육생을 선발해 1인당 최대 1500만 원의 초기사업비를 지원하고, 시험분석 등 후속 지원도 제공하는 등 창업 아이템의 구체화와 사업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이어갈 방침이다.

교육생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수산대학교 홈페이지(www.af.ac.kr) 공지 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 RISE사업 연차평가 간담회’ 개최

13개 대학·학생·주민 등 참여

전북 RISE사업 1차연도 평가를 앞두고 대학과 사업 참여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소통의 장이 마련됐다.

전북특별자치도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사업 전담기관인 전북테크노파크 부설 JB지산협력센터(전북 RISE센터 센터장 채수찬)는 지난 3일 전주 더메이호텔에서 ‘전북 RISE사업 연차평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북 RISE사업은 도내 산업 고도화와 기업 성장을 견인하는 혁신 거점인 전북테크노파크가 그간 쌓아온 기업 지원 노하우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과 대학을 있는 가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전북RISE사업 연차평가 계획을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간담회에는 김호식 전북자치도 교육협력과장, 채수찬 전북RISE센터장을 비롯해 13개 참여대학, 학생, 주민, 시·군 담당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홍보영상 시청, △전북 RISE 연차평가 계획(안) 설명, △전북 RISE 사업 추진현황 및 2026년 추진방향 안내, △질의응답 및 의견수렴 순으로 진행

됐다.

전북 RISE센터는 단년도 성과만으로 RISE 사업의 성과를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이번 연차평가는 1차연도의 성과를 진단하고 2차연도로의 도약을 준비하는 전환점으로 삼는다는 방침이다.

특히 연차평가를 통한 단순 서열화를 지양하고, 지역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고 상생하는 환류 체계를 마련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계획이다.

의견수렴 과정에서는 2차연도 사업 추진에 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전북RISE센터는 제시된 의견을 검토△사업에 반영할 예정이다.

채수찬 전북RISE센터장은 “RISE 사업은 대학만의 사업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산업계가 함께 혁신의 토양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라며, “이번 평가가 대학들에게는 스스로의 방향을 점검하고, 우리에게는 더 나은 지원 방식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각 대학이 뿌린 성과들이 흩어지지 않고, 전북이라는 하나의 큰 혁신의 숲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사진=전북은행>

‘JB희망의 공부방 제230호’ 오픈

지역 아동 돌봄·학습지도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은 전주 드림지역아동센터에서 ‘JB희망의 공부방 제230호’ 오픈식을 실시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난 2008년 문을 연 드림지역아동센터는 현재 아동 26명에게 방과 후 돌봄과 학습지도 등을 제공하고 있다. 개소 후 18년이 지나며 아동들의 생활 및 학습 공간이 노후화되고 환경개선이 시급해짐에 따라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다.

전북은행은 오래된 벽지와 장판, 시트지, 블라인드, 사물함 등을 교체해 쾌적한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아동들의 체형에 맞는 책상과 의자를 지원함으로써 독서 교육과 숙제 지도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도왔다.

오픈식에는 드림지역아동센터 소형화 센터장, 전북은행 조인성 부행장, 정영민 전북특별자치도청 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소형화 센터장은 “아동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새롭게 바뀐 센터의 모습에 놀라워했다”며 “전북은행의 도움으로 아동들이 각자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소중한 공간이 마련돼 매우 기쁘고 감사하다”고 전했다.

조인성 부행장은 “새롭게 조성된 공부방에서 아동들이 미래를 위한 꿈을 키워나가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들을 찾아가 다양한 지원 사업을 이어갈 것이며, 도민들의 마음속에 가장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고창 고인돌박물관 '무장기포의 햇불' 특별전

오는 30일까지 음성 무장현 관아 등에서 출토된 유물 23점 선봬

고창 세계유산 고인돌박물관이 4월 이달의 전시로 '무장기포의 햇불, 천리를 밝히다'를 주제로 유물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전시는 오는 30일까지 고인돌박물관 2층 실감영상관에서 진행된다. 전시에서는 '동학농민혁명 성지화사업' 부지와 무장현 관아, 음성에서 출토된 유물 23점을 선보인다. 특히 2023년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고창 구암리 유적에서는 조선시대 주거지와 무물 등이 확인됐으며, 생활유물과 상평통보 등 총 24점이 수습·인계됐다. 이

가운데 일부를 선별해 주요 유물로 공개한다. 무장기포지는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 공음면 구암리에 위치한 동학농민혁명의 발상지다. 1894년 음력 3월 20일 동학농민군이 봉기의 취지와 목적을 담은 포고문을 낭독하며 1차 동학농민혁명이 시작된 역사적 현장이다. 이는 지역적 민란이 전국적 농민혁명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됐다는 점에서 중요한 역사적 가치를 지닌다. 이에 고창군은 4월말 '동학농민혁명 무장기포 기념주간'을 운영하며, 기념제와 진격로 걷기 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개최해 그 역사적 가치를 기리고 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전시가 고창 동학농민군의 발자취와 시대정신을 군



민과 관광객에게 전달하는 뜻깊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무장기포지와 무장음성 등 동학농민혁명 유적지와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인 동학농민혁명기록을

<사진=고창군> 통해 살아있는 역사를 체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군산대 김성천 명예교수, 1천만 원 기부

대학 발전·학생들 꿈 응원
국립군산대학교는 지난 3일 김성천 명예교수가 대학 발전과 인재 양성을 위해 발전 기금 1,000만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 기금은 국립군산대의 교육환경 개선과 학생 지원, 대학 발전을 위한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 명예교수는 국립군산대 환경공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후학 양성과 학문 발전에 헌신해 왔으며, 대학의 지속적인 성장과 학생들의 꿈을 응원하는 뜻을 담아 이번 기부를 마련했다. 기부에 앞서 국립군산대 김 명예교수는 "국립군산대가 더욱 발전하고, 학생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자신의 꿈을 펼쳐 나가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국립군산대 김강주 총장은 "소중한 뜻이 학생들의 성장과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국립군산대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군산=지승길 기자

전북교육청, 교육전문직원 59명 선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정규교원을 대상으로 올해 총 59명의 유·초·중등 교육전문직원을 공개 선발한다. 지난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2026년 교육전문직원 임용후보자 선발' 규모는 유치원 5명, 초등 25명, 중등 29명 등 총 59명이다. 도교육청은 지원 기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올해 응시 자격을 지난달 1일 기준 교육경력 15년 이상인 정규교원으로 제한했다. 지원을 희망하는 교원은 오는 15일까지 자기소개서와 직무수행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유·초·중학교 소속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국·공·사립 고등학교 및 특수학교 소속은 도교육청 교원인사과에 접수하면 된다.



채용 전형은 서류 심사를 시작으로 1차 소양평가, 2차 현장평가, 3차 역량평가 등 총 4단계로 진행해 지원자들 중 최종 합격자는 오는 6월 19일 발표할 예정이다. /최성민 기자

전북교육청, 분야별 전문 교육환경보호조 재구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주변 무분별한 개발사업으로부터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호하기 위해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된 '전북특별자치도 교육환경보호위원회'를 새롭게 꾸려 가동한다. 지난 3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재구성된 위원회는 관련 공무원과 함께 건축·환경·안전·교통 분야 외부 전문가 13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학교 설립이나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 주변 개발사업이 교육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중점 심의 대상은 소음, 진동, 통학로 안전, 일조권 등 학생들의 학습 및 안전과 직결된 요소들이다. 위원회는 사업자가 제출한 교육환경평가서를 바탕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필요한 보완 대책을 요구하게 된다.



'제23회 정읍시장배 시니어 테니스 대회' 성료

정읍시 테니스협회(회장 정종석)가 주관하고 정읍시가 후원한 '제23회 정읍시장배 시니어 테니스 대회'가 지난 2일 정읍시 공설 테니스장 등 3곳에서 160여 명의 동호인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대회는 전북특별자치도 내 시니어 동호인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겨루고 화합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전년도까지 '이순 테니스 대회'라는 이름으로 운영됐으나, 올해부터는 더욱 다양한 연령층의 선수를 포괄하기 위해 '시니어 테니스 대회'로 명칭을 변경해 새롭게 출발했다. 경기는 참가자들의 연령에 따라 이순부(60대), 고희부(70대), 팔순부(80대)로 나뉘어 진행됐다. 이 중 이순부와 고희부는 참가 선수들의 기량 수준을 고려해 금·은·동부로 세분화해 운영함으로써 대회의 내실을 기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대회가 시니어 동호인들이 활력을 재충전하고 지역 간 교류를 다지는 뜻깊은 화합의 자리가 됐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워크숍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 이하 재단)은 지난 2일부터 3일까지 2026년 문화예술육성지원사업 선정자를 대상으로 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워크숍은 사업에 선정된 예술인 및 예술단체를 대상으로 보조금 교부, 집행 및 정산 절차를 안내하고,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현장에서는 성희룡·성폭력 예방교육과 예술인 권리보장

교육이 함께 진행됐으며,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과정 전반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또한 장르별 담당자가 참여하는 1:1 상담부스를 운영해 참여자들의 개별 상황에 맞는 안내를 제공했다. 이번 워크숍 1일차에는 약 80여 명의 예술인이 참여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재단은 기존 설명 위주의 전달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과 질의응답을 통해 참여자들이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운영했다.

이를 통해 자주 발생하는 문의사항을 사전에 안내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혼선을 줄이는 데 도움을 주고자 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선정자들이 처음 사업을 시작하면서 겪는 부담을 줄이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안내를 중심으로 워크숍을 구성했다"라며, "앞으로도 예술인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지원을 이어가겠다"라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봄철 산악 안전사고 예방수칙

1

산오르기 전
충분한 준비운동
및 산악 안전 장구
착용

2

산행 중
음주 절대 금지
야간 산행은
되도록 이면 자제

3

사진촬영으로
인한 실족 및
추락사고 주의

4

산행 전 당일
날씨와 등산로정보
미리 알아두기

5

부상및 조난 시
산악위치 표지판
활용, 119 신고

전북타임스 연중 캠페인

군산시, 부시장과 함께하는 노필터 토크쇼 열어

군산시는 지난 3일 오후 시청 2층 강당에서 자연차 직원들과 간부 공무원들이 격식 없이 소통하는 '부시장과 함께하는 격의 없는 노필터 토크쇼'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30일 간부공무원 대상으로 열린 청렴도 추진협의회 및 실무 추진단 합동회의의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특히 조직의 주역으로 성장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발버둥치고 있는 자연차 직원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크쇼에서는 직원들이 현장에서 제시하는 조직 개선 의견을 부시장을 비롯한 각 국 간부들이 즉석에서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군산시는 시행 가능성이 있는 사안은 적극 추진하되,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는 그 타당한 이유와 대안을 솔직하게 공유함으로써 조직의 문제점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신뢰를 쌓는 데 집중했다.

또한, 직원들이 조직 생활 속에서 경험한 긍정적인 사례를 나누며, '청렴은 곧 나의 자존감'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는 자리도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직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건강한 조직문화를 정착시키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다.

시 관계자는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하며 입증된 성과를 바탕으로 이번 토크쇼와 같은 진솔한 소통 활동을 지속해 조직 내 청렴도와 신뢰도를 동시에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제81회 식목일 기념 나무심기 행사 개최

익산시가 식목일을 맞아 시민들과 함께 나무를 심으며 도심 속 녹색 공간 확산에 나섰다.

익산시는 지난 3일 '제81회 식목일'을 기념해 신흥공원 내 유아숲체험원에서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최재용 익산시 부시장을 비롯해 관계 기관·단체, 시민, 공무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아이와 가족이 행복한 숲'을 주제로 마련됐으며, 유아숲체험원에 수국 1,000여 그루를 식재해 산림 경관을 한층 개선했다.

아울러 시민들이 직접 참여해 나무를 심고 가꾸는 과정을 통해 숲의 소중함과 기후 변화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는 계기를 제공했다.

최재용 부시장은 "기후 변화에 따른 탄소 저감 효과와 휴양, 치유, 교육 공간으로서 숲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며 "앞으로도 녹색도시 조성을 위해 일상에서 나무를 심고 가꾸는 문화를 확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증가하는 산림복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조림과 숲가꾸기 등 총 436ha 규모의 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연분홍빛 봄의 향연 '2026 정읍 벚꽃축제' 성료

정읍시를 대표하는 봄꽃 축제인 '2026 정읍 벚꽃축제'가 화려한 막을 내렸다.

지난 1991년 시작돼 올해로 35주년을 맞이한 정읍 벚꽃축제는 정읍천 벚꽃길을 따라 펼쳐지는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축제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정읍천 어린이축구장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정읍과 봄'이라는 메인 슬로건 아래 '벚꽃을 봄, 문화를 봄, 내일을 봄'이라는 감성적인 메시지를 담았다.

특히 벚꽃과 공연, 체험과 먹거리가 풍성하게 어우러진 시민 참여형 축제이자 낮과 밤 언제든 머물며 즐길 수 있는 체류형 봄 축제로 기획돼 더욱 눈길을 끌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전을 수놓는 연분홍빛 벚꽃 길을 걸으며 일상의 피로를 털어내고, 전국에서 오신 방문객 모두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눈부신 봄을 맞이하셨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 왕궁, 생태 도시 밑그림”

에넨 프로젝트 창립자 팀 스미트와 연세 화동 사업 추진 의지 확인

익산시가 과거 환경 오염의 아픔을 간직한 왕궁 지역을 세계적인 생태 관광지로 되살리기 위한 거대한 밑그림을 그렸다.

정현을 익산시장을 비롯한 영국 방문단은 현지 시간으로 3월 31일부터 이틀간 영국의 생태 복원 성지로 불리는 콘월 지역을 집중 시찰했다. 이번 방문은 폐쇄된 채석장과 방치된 땅을 세계 최대 식물원으로 바꾼 영국의 성공 사례를 익산 왕궁 지역에 도입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장 3일 차인 지난 3월 31일, 정 시장은 에넨 프로젝트의 창립자이자 '헬리건의 잃어버린 정원'을 직접 일궈낸 팀 스미트(Tim Smit)를 만났다. 팀 스미트는 수십 년간 방치된 정원을 영국 최고의 관광지로 되살려낸 인물이다. 정 시장은 그와 함께 정원 곳곳을 둘러보며 왕궁 지역의 생태적 가치를 어떻게 끌어올릴지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

이어 지난 1일에는 에넨 프로젝트의 경영자인 앤디 제스퍼(Andy Jasper) CEO를 만나 시설 전반을 시찰하고 실무적인 업무 협의를 진행했다. 특히 이



영국을 방문 중인 정현을 시장이 팀 스미트와 악수를 나누고 있다. <사진=익산시>

날 저녁에는 에넨 프로젝트 측이 마련한 환영 만찬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양 측은 단순한 업무 관계를 넘어 깊은 유대감을 쌓았으며, 익산 왕궁을 세계적인 생태 거점으로 만들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다.

앤디 제스퍼 CEO는 "익산시가 추진하는 생태 복원은 매우 용기 있고 가치 있는 시도다"며 "앞으로 우리가 가진 운영 노하우와 기술을 익산시와 적극적으로 공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번 5박 7일간의 일정은 익산시의 미래를 바꿀 소중한 성과들로 채워졌다. 방문단은 출장 기간 중 영국 최대 유통 업체인 '코리아 푸드'와 업무 협약을 맺고 우리 식품 기업들의 유럽 진출

길을 열었다. 또한 유럽 최대 한인 타운인 뉴몰든의 '코리아타운공익재단'과 손잡고 지속적인 문화 교류 기반도 다졌다.

출장 마지막 날에는 주영국 대한민국 대사관과 코트라(KOTRA) 런던무역관을 방문해 익산의 에넨 프로젝트와 식품 수출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정부 차원의 외교적 지원도 요청했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이번 영국 방문은 왕궁 지역을 자연과 사람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며 "현지에서 확인한 생태 복원의 기적을 익산에 재현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생태 도시를 반드시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사료 자금 551억 원 용자 지원

총 227개 농가 신청... 축산농가 경영 부담 완화

정읍시가 대외 불확실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축산농가의 사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 상반기 총 551억 3600만원 규모의 '사료 구매 정책자금'을 저금리로 용자 지원한다.

현재 사료의 주요 원료인 옥수수·대두·밀 등은 미국과 남미 등에서 수입돼 전 세계적인 수급은 안정적일 상태다. 하지만 불안한 중동 정세에 따른 고환율과 고유

가의 영향으로 해상 운임이 상승하는 등 가격 변동의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다. 이에 시는 축산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용자 100%, 금리 1.8%, 2년 거주 후 일시 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을 마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한우·육우·젓소·돼지·닭·오리·사슴·말·양·염소·꿀벌 등 다양한 축종 농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신규 사료 구매뿐만 아니라 기존 외상 금액 상환에도 자금을 활용할 수 있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정읍=김정민 기자

앞서 시는 지난달 4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사전 수요조사를 마쳤으며, 총 277개 농가가 신청했다. 시는 농가별 신청 금액, 사육 두수, 기존 대출 잔액, 지원 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이달 중으로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 통보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저금리 사료 자금 지원이 농가의 숨통을 트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축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군산시, 2026년 청년정책 본격 추진

생애주기별 5대 분야 60개 사업 맞춤형 지원

군산시는 지난 3일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공유하고 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2026년 제1회 군산시 청년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청년정책 전문가와 청년위원, 관계 공무원 등 30여 명이 참석해 2025년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공유하고, 2026년 시행계획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군산시는 "청년이 일하고 정착하며 참여를 통해 성장하는 도시, 군산"을 비전으로 설정하고, 청년의 삶을 진인-정착-확장-전환의 생애주기 4단계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

축할 계획이다. 이를 바탕으로 일자리, 주거, 교육, 복지·문화, 참여·권리 등 5개 분야 60개 사업을 추진한다.

먼저, 사회진입기(18~24세)에는 학업 및 취업 준비 부담 완화와 진로 탐색 지원에 중점을 두고, 청년뜰 운영, 청년활동수당, 면접정장 무료대여 등을 통해 취업 준비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정착 형성기(25~29세)에는 취업·창업 초기 청년의 주거 안정과 일자리 연계 등을 중심으로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 주택산업 안착플러스, 지역정착금 등을 통해 첫 일자리와 주거 안정을 지원한다.

자립·확장기(30~34세)에는 자산형성과 생활 안정, 일·가정 양립 지원에 중점을 두고, 두배적금, 가사서비스 지

원, 남성 육아휴직 장려금, 청년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등을 추진해 장기근속과 지역 정착을 유도한다.

안정·전환기(35~39세)에는 경력 전환과 재도전을 지원해 지역 핵심 인력으로서의 정착을 강화한다.

신혼부부 주택 전세 및 구입자금 이자 지원, 다자녀 패밀리카 지원, 사회적경제 청년혁신가 육성, 청년기업 인증 등을 추진한다.

김영민 부시장은 "청년정책위원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고, 청년이 정착 설계와 실행에 참여하는 구조를 강화하겠다"며 "군산이 청년이 머물고 성장하는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숨은 일자리 직접 찾는다

채용 지원~사후관리까지 통합 지원체계 구축

익산시가 기업을 직접 찾아가 채용 수요를 발굴하고 취업까지 연계하는 현장 중심 일자리 정책을 본격 추진한다.

시는 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구직자 취업 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일자리 발굴단'을 운영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구인기업과 구직자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 플랫폼 등에 채용공고 없이 자체 채용을 진행하는 숨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마련됐다.

발굴단은 청년일자리과장을 단장으로 일자리정책계장과 담당자, 통합일자리센터 상담사, 기업지원계 담당자 등으로 구성되며, 월 2회 지역 기업을 방문한다. 특히 단순 채용 수요 조사에 그치지

않고, 구직자 맞춤형 매칭과 면접 지원을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하고, 취업 이후에도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고용 유지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은 기업을 가다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직접 찾아가는 적극적인 일자리 정책"이라며 "체계적인 지원으로 지역 고용환경 개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중간집 시범사업 대상지 선정

퇴원 후 일상 복귀 도와

군산시는 보건복지부와 중앙노인돌봄지원기관이 주관하는 '중간집(단기 지원주택) 모형 구축 시범사업' 대상지로 지난 1일 선정돼, 어르신들의 건강한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돌봄 인프라 강화에 나선다고 밝혔다.

'중간집'은 병원에서 퇴원한 어르신 이 가정으로 복귀하기 전 일정 기간 거주하며 재활과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는 가교형 주거 공간이다.

통상 3개월 이내 머물며 일상생활 적응을 지원하는 시설로, 돌봄 환경 부족으로 인해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사회적 입원'을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특히 군산시는 도서 지역이 많은 지리적 특성을 고려할 때, 퇴원 후 섬 지역으로 귀가하는 어르신들의 경우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크다는 점에서 이번 중간집 도입이 의료 접근성 향상과 돌봄 공백 해

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이번 공모 선정에 따라 관내 고령자복지주택 일부를 중간집으로 전환해 운영할 계획이다. 선정된 '일상회복형' 모델을 통해 주거 환경 개선비와 가전·가구 등 생활 기반 구축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또한 중간집 입주 어르신에게는 단순한 주거 제공을 넘어 군산형 '의료·요양 통합돌봄 서비스'를 패키지로 지원한다.

주요 내용은 △개인별 맞춤형 돌봄계획 수립 △방문진료 및 재활운동(물리·작업치료) △영양 식사 제공 △24시간 응급안전 서비스 등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이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고령자복지주택을 활용한 군산형 중간집 모델을 성공적으로 정착시켜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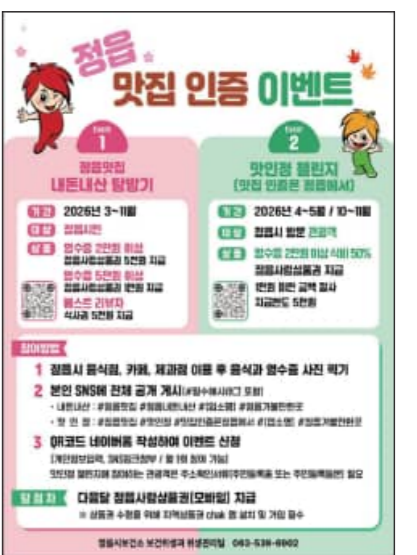
정읍시, 식사비 50% 돌려주는 '맛·인·정 쉼린지'

지역 경제 활성화 도모

정읍시가 봄 날들이철인 4월과 5월 두 달간 지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식사 비용의 50%를 정읍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맛·인·정 쉼린지'를 추진한다.

'맛·인·정'은 '맛집 인증은 정읍에서'의 줄임말이다. 관광객의 지역 음식점 이용을 촉진하고 방문 경험을 SNS에 공유해 온라인 홍보 효과를 높이기 위해 추진한다. 더불어 지급된 지역 상품권이 다시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유도해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기획됐다.

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정읍시 관내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을 이용한 뒤 음식 사진과 결제 영수증 사진을 촬영하면 된다. 이어 개인 SNS에 5개의 필수 해시태그(#정읍맛집 #맛인정 #맛집인증은정읍에서 #업소명 #정읍가볼만한곳)와 함께 전체 공개로 게시물을 올린 후, 홍보물에 있는 QR코드를 통해 네이버 폼에 접속해 신청서(개인 정보 및 SNS 링크 첨부)를 제출하면 된다.



<사진=정읍시>

익산 어린이, 학교서 신선한 과일 간식 먹는다

익산시가 성장기 어린이의 건강한 식습관 형성과 지역 농산물 소비 확대에 나선다.

익산시는 초등학교 돌봄교육에 참여하는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어린이 과일 간식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지역 내 56개 초등학교 학생 1,826명으로, 사과, 딸기, 토마토 등 국산 과일·과채를 컵 또는 파우치 형태로 주 1회 이상 무상 제공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봄맞이 주요 현장 점검

정읍시가 본격적인 봄나들이철과 벚꽃축제를 앞두고 지난 2일 시민과 관광객의 발길이 닿는 주요 현장을 직접 점검하며 선제적인 안전 관리에 나섰다.

이학수 시장은 이날 정읍역 광장을 비롯해 정읍천 신축 화장실 3곳, 벽천분수, 벚꽃축제 행사장 등 주요 사업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먼저 정읍역 광장에서는 무대 설치 계획과 광장 활용 방안을 살펴보고 이용 동선에 지장을 주지 않는 배치와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줄 것을 주문했다. 또한 정읍천 일원에서는 신축 화장실 3곳의 남녀

구분 표기 개선과 보도블록 정비 등 철저하게 이용자 관점에서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이어 벽천분수 조성 현장의 공정 상황을 살피고 벚꽃축제 행사장에서는 '차 없는 거리' 운영 방식과 공연·체험 부스 등 축제 전반의 준비 상황 및 안전 관리 계획을 철저히 확인했다.

이학수 시장은 "정읍시는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안심하고 쾌적하게 정읍의 원연한 봄을 만끽할 수 있도록 현상 중심의 철저한 관리를 이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김제-디제이산업, 54억 규모 투자협약

지평선산단 미착공 부지 활용...도금도장 일괄공정 구축

김제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함께 도장 전문기업 ㈜디제이산업(대표 김정회)과 지난 3일, 54억 원 규모의 투자협약(MOU)을 서면으로 체결했다고 밝혔다.

㈜디제이산업은 지평선산단 내 약 6,612㎡(약 2,000평) 부지에 도장 전문 공장을 신설해 연내 가동하고 20여 명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투자는 산단 내 미착공 부지를 매입해 추진하는 것으로, 유류 산업용지의 실질적 가동을 이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주요 생산품은 분체도장 제품으로, 금속 표면에 도료를 입혀 내식성과 미관을 동시에 확보하는 공정이다. 분체도장은 용제를 사용하지 않아 유해 배출물이 적은 친환경 공법으로, 기존 액상 도료를 빠르게 대체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시장 성장이 기대되고 있다.



(주)디제이산업 투자협약서 <사진=김제시>

이번 투자는 지평선산단 내 도금 제품 제조 기업과 ㈜디제이산업의 신규 도장 설비를 연계해 물류비 절감과 납기 단축에 따른 생산 효율성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한다.

김정회 ㈜디제이산업 대표는 “도금 후 관외 업체에 도장을 맡기던 기존 구조에서 벗어나 공정 연계를 통해 생산성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며 “주거대책과의 협의를 통해 향후 3년간의 수주 물량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투자는 기업 간 연계를 통한 산업단지 집적화 효과를 높이고, 신속한 투자 이행으로 미착공 부지의 가동률을 높여 산단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기업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재정 지원을 강화해 ‘기업이 투자하기 좋은 도시 김제’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 청소년 드론축구단 지원’ 조기 달성

고창사랑지정기부제... 152명 참여 2천만원 모금

고창군 고향사랑기부제 지정기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고창 청소년 드론축구단 지원 모금’이 목표를 조기 달성하면서 지난 2일 고창군청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고창의 별 육성사업 시즌2-고창 청소년 드론축구단 지원’은 드론축구를 통해 청소년들의 미래 역량을 키우고 지역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다.

고창군은 목표액을 2000만원으로 설정하고 지정기부 모금을 진행하면서 152명의 기부자 참여로 지난 3월 30일 목표 모금액을 달성하며 모금을 완료했다. 모금된 기부금은 고창 청소년 드론축구단에 전달돼 운영비로 사용될 계획이다.



고창군은 지난 2일 고창군청에서 기부금 전달식을 진행했다. <사진=고창군>

드론축구단 김경숙 감독은 “지역 사회의 따뜻한 관심과 소중한 기부금 덕분에 우리 드론축구단 청소년 선수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훈련에 매진하고 꿈을 키워나갈 수 있게 됐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고창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의 미래를 이끌어갈 청소년과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정기부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군,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

신속·체계적 대응 실질적 성과 창출 집중

부안군은 지난달 31일과 지난 3월 2일간 정화영 부안군수 권한대행 주재로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18개 부서에서 추진 중인 161건의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쟁점사항, 향후 조치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총사업비 1억원 이상, 용역비 5000만원 이상인 주요 투자사업에 대상으로 진행됐다.

군은 보고회에서 신규사업 착수와 계속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하고 향후 조치계획 및 발생가능한 쟁점 사항을 사전에 파악해 선제적인 대책 마련에 중점을 뒀다.

특히 보고회는 해당 부서를 직접 방문해 부서의 애로사항을 듣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지연 요인을 사전에 파악해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논의하는 등 실질적인 쟁점사항 논의에 중점을 두고 군 주요 투자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다했다.

군은 이번 보고회를 시작으로 분기별 주요 투자사업 추진상황 점검을 추진해

군정 주요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집중 관리하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 체계적인 군정 운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화영 권한대행은 “2026년 주요 투자사업 추진 부서 방문으로 보고회를 진행해 현황을 청취하고 각 사업의 추진 방향과 초기 쟁점 사항을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었다”며 “올해 계획된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해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군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추진

5월 22일까지 신청 전기료·난방비 절감 기대

고창군이 군민들의 에너지 복지 실현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2027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신청자를 모집한다.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은 주택과 건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두 종류 이상의 신재생 에너지를 설

치해 전기와 열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신청 기간은 내달 22일까지다.

대상지역은 고창군 관내 14개 읍·면 전역이며, 해당 지역 내 주택 및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설비는 태양광(3kW) 태양열(13.6㎡) △지열(17.5kW) 등이다.

신청자의 자부담 금액은 주택 기준 500 △태양광 121만원 △태양열 154만원 △지열 352만원 이다.

희망하는 주민은 설치 대상지 소재지의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고, 2026년 11월 이후 한국에너지공단에서 공모 결과 발표에 따라 확정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사업이 군민들의 에너지 비용 절감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에너지 복지 혜택이 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기한 내 적극적인 신청을 바란다”고 전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사진=고창군>

고창군 “복분자·흑임자 대규모 계약재배”

(주)지비엠에스와 협력

고창군이 지난 2일 오후 군청2층 회의실에서 고창군·(주)지비엠에스·지역농협 5개소와 ‘고창 복분자·흑임자 원료 공급 및 생산발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협약은 3년간 복분자 100톤, 흑임자 연 20톤 규모의 공급을 목표로 추진된다. 고창군은 행정지원과 품질관리, (주)지비엠에스는 원물구매와 제품개발을 통한 수익 기반 마련에 노력한다. 지역농협은 계약재배를 통한 수매·선별·저장·출하 등 유통 전반을 담당한다.

군은 이번 협약이 복분자·흑임자에 국한되지 않고 향후 지역 내 다

양한 특산물을 활용한 신제품 개발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고창 복분자는 안토시아닌, 폴리페놀, 비타민 등 유효 성분이 풍부해 우수한 품질을 인정받고 있다. 군은 이번 협약을 통해 고창 복분자의 브랜드가치를 더욱 높이고 전국 시장에서의 인지도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원물 거래를 넘어 고창군 농가와 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 모델의 출발점이다”며 “청정 고창의 우수한 복분자가 전국을 넘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 감자캐기 체험사전 예약 시작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추진위원회(위원장 임영용)는 오는 18일부터 19일까지 열리는 ‘제16회 지평선광활햇감자축제’의 인기 프로그램 ‘광활햇감자 캐기 체험’ 사전 예약을 오늘부터 10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참가자들은 김제시 광활면의 넓고 비옥한 간척지에서 직접 감자를 캐며 봄철 농촌의 생생한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갖 수확한 햇감자를 손에 쥐는 특별한 체험은 아이들과 함께하는 가족 나들이 프로그램으로 매년 큰 인기를 끌고 있다.

체험 신청은 네이버 예약을 통해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접수 마감 이후에는 취소소문 등에 한해 추가 온라인 접수 및 현장 접수가 일부 운영될 예정이다.

특히 단체 참가도 네이버 예약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 단체는 10인 이상 15인 이하, 장애인 단체는 8인 이상 10인 이하로 구성해 신청 가능하다.

축제 관계자는 “해풍을 맞고 자란 광활감자는 깊은 맛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한다”며 “이번 체험을 통해 직접 수확하는 기쁨과 함께 광활감자의 매력을 마음껏 느껴보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누에타운, 특별전시전 ‘위도의자연과곤충이야기’ 개최

부안누에타운 곤충탐사과학관은 이달부터 오는 8월 10일까지 부안군 위도면을 주제로 제24회 전문 특별전시전 ‘위도의자연과 곤충이야기’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회는 위도의 곤충과 지질명소 탐사를 주제로 전시됐던 ‘2024년 위도의 장수풍뎠이’에 대한 관람객의 큰 호응과 관심이 이어져 이번에 타이틀을 바꿔 ‘위도의자연과 곤충이야기’로 특별전시전을 갖게 됐다.

전시에서는 장수풍뎠이를 비롯해 100여 마리에 이르는 ‘자연의 보물’ 곤충들과 9000만년의 신비함을 간직하고 있는 섬사진들이 어우러져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위도는 고송도치 섬의 한자 표기에서 유래했으며 약 28.09km의 면적을 갖고 있다. 또 위도면은 식도·왕도도를 포함한 6개의 읍면도와 24개의 무인도로 이뤄져 있으며 인구는 1072명(2026년 기준)이다.

고려청자를 실어 나르던 서해 칠산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 망월봉은 해발 255m로 위도에서 가장 높은 곳이다.

누에타운 관계자는 “이번 전문 특별전시전을 통해 신비로운 섬 위도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공유하는 전시 문화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 주민공청회 개최

고창군이 지난 1일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위한 사전행정 절차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창군, LH공사, 용역사, 관계 전문가가 참석해 사업의 진행과정을 설명했고, 고창읍 주민 200여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청년의 미래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터미널 신축사업의 주민과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신규 주차장 조성 등에 대한 의견이 있었다. 이에 고창군에서는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고 답했다.

고창터미널 도시재생 혁신지구사업은 현 고창공용터미널 일원에 총 사업비 1777억원(터미널 사업비 417억원, 공동주택 등 1360억원)으로 공용터미널 및 통합공공민대주택 210세대를 신축하는 사업이다.

이희경 고창군 도시디자인 과장은 “군민들이 염려하는 부분에 대한 면밀하고도 충분한 검토를 하겠다”며 “지역 최대사업인 만큼 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변산면, 느린우체통 업무협약 체결

리마인드 감성관광 본격화

부안군 변산면(면장 양정우)은 지난 3일 변산우체국 및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생태탐방원과 함께 추억의 느린우체통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나섰다

느린 우체통은 방문객이 작성한 관광엽서를 1년 뒤 발송해 주는 서비스로 주요 관광명소와 숙박시설에 설치돼 여행의 순간을 기록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 속에서 느린의 미학을 담은 아날로그 감성으로 관광객의 재방문을 유도하고 지역 관광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

기 위해 마련됐다.

이들 3개 기관은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유기적인 협업 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변산면은 사업 총괄 및 행정과 홍보 지원을, 변산우체국은 우편물의 정기 회수·보관 등 우편 서비스 전반을, 생태탐방원은 탐방 프로그램과 연계한 체험 운영 및 현장 홍보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양정우 변산면장은 “느린 우체통은 시간을 담아 추억을 전하는 감성 관광 콘텐츠”라며 “1년 뒤 도착하는 편지가 당시의 설렘을 깨워 재방문을 이끄는 리마인드 관광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부안=온봉기 기자

‘김제 꽃빛드리축제’ 시민 호응 속 성료

김제시의 완연한 봄을 알린 ‘2026 김제 꽃빛드리축제’가 도심 속에서 시민들에게 특별한 휴식과 즐거움을 선사하며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3일간 시민 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서 펼쳐진 이번 축제는, ‘모두가 함께 만드는 봄날의 놀이동산, 꽃빛랜드’라는 콘셉트로 진행됐다.

이를 위해 익숙했던 체육공원을 꽃과 빛이 함께한 테마파크로 변신시켰으며, 멀리 외곽으로 나가지 않고도 일상생활 권역인 시내에서 쉽게 문화를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시민들의 뜨거운 호응을 이끌어냈다. 또한 이번 축제는 단순한 꽃 구경

을 넘어 빛과 공간 연출, 다채로운 공연, 체험, 로컬마켓 등이 결합된 완성도 높은 ‘복합 문화축제’로 진행됐으며, 메이커스 파크와 드로잉 파크 등 방문객 참여형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함으로써 함께 만드는 축제의 취지를 살렸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이번 꽃빛드리축제는 시민들이 우리가 사는 도심 한가운데서 이웃과 함께 봄의 정취를 만끽하고 화합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남다르다”며, “앞으로도 시민이 행복하고 활력 넘치는 김제시를 만들기 위해 새롭고 다채로운 문화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과수고품질 시설 현대화사업’ 접수

부안군은 기후변화와 시장 개방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응하고 지역 과수 농가의 실질적인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26년 과수고품질 시설현대화사업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고품질 과수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기상재해 예방 시설을 지원해 지역 과수산업의 생산성과 안정성을 함께 높이기 위한 것이다.

지원 대상은 원예산업발전계획에 따른 생산·유통 통합조직 또는 지역 푸드플랜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체이며, 사업비는 보조 50%, 자부담 50%의 비

율로 지원된다. 특히 이번 사업은 농가 현장에서 수요가 높은 시설을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관수·관비 시설과 배수시설, 작업로 정비비 비롯해 품질 향상을 위한 품종갱신, 지주시설, 비가림시설까지 지원하며 서리·우박 피해방지시설과 방풍망 등 재해예방 시설도 포함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5월 말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신청서를 방문에 신청하면 된다.

/부안=온봉기 기자

유희태 재선 출사표...1호 공약 '민생지원금'

'민생 안정' 고유가 지원금 공약 통합 반대 재확인...군민 뜻 우선 관광·에너지 기반 도약 비전 제시

유희태 완주군수가 '위대한 전진, 행복경제도시 완주'를 내걸고 민선 8기의 성과를 완주 대도약의 결실로 맺기 위한 재선 도전에 나섰다.

지난 3일 유희태 군수는 완주군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구 10만 시대 복원과 수소 국가 산업 단지 유치 등 지난 4년간 거둔 이정표를 바탕으로, 완주를 전북 경제 1번지이자 전국 최고의 행복 도시로 완성하겠다고 강력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난 2일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유군수는 당초 5월로 예정했던 후보 등록 시기를 앞당기며 선제적인 행보에 나섰다.

특히 유 군수는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한 '1호 공약'으로 완주군 자체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을 전격 약속했다. 중동발 전쟁 여파에 따른 고물가와 고급 리로 고통받는 소상공인과 군민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



<사진=유희태 완주군수 출마예정자>

한 조치다.

아울러 완주-전주 통합과 관련해서 "군민 62% 이상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통합은 결코 있을 수 없고, 주민 간 갈등도 있어서는 안된다"며, 군민의 뜻이 중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이어 완주의 새로운 미래를 열 '햇빛 소득 기본 사회' 비전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직접 에너지를 생산하고 수익을 환원받는 에너지 지산지소의 전국 모델 만들겠다는 포부를 드러냈다.

또한 만경강 생태 주차장을 기반으로 한 관광 벨트를 구축해 연간 방문

객 3000만명 시대를 열고, 수소와 피지컬 AI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전북 경제 1번지로서의 위상을 확고히 하겠다는 구체적인 청사진도 제시했다.

유 군수는 미니 복합타운과 삼봉 2지구를 조기 조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13개 읍면의 특성을 반영한 특화 사업과 생활 기반 시설(SOC) 확충을 통해 지역 균형 발전을 꾀하겠다는 구상도 함께 내놓았다.

유 군수는 "말보다 결과로 증명하고 약속보다 실천으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 대송한지 우수 입증...덕수궁 창조지 낙점

덕수궁 보수 창조지·벽지 활용 전통 방식·재료 우수성 인정

완주 대송한지마을에서 생산한 전통 한지가 덕수궁 보수 공사에 사용되며 천년 한지의 가치를 다시 한번 입증했다.

완주 대송한지마을은 전통 한지 생산지로 널리 알려진 곳으로, 조선 시대 궁궐 공사에 한지를 공급한 기록이 있으며 1980년대까지 국내 최대 한지 생산지로 명성을 이어왔다. 근대화 과정에서 잠시 명맥이 약해지기도 했으나, 최근 전통 방식 복원을 통해 다시 활기를 되찾았다.

지난 3일 대송한지마을에 따르면 올해 진행되는 궁궐 보수 공사에 완주 한지가 처음으로 적용된다. 이번엔 남품하는 한지는 창조지와 벽지, 장판지 등으로, 재료 선정부부터 제작 과정까지 모두 순수 국내산물을 사용한 전통 방식을 고수한 것이 특징이다.

그동안 궁궐 공사에는 주로 다른 지역의 한지를 사용했으나, 이



<사진=완주군>

번에는 대송한지마을이 지켜온 전통 방식과 국내산 재료의 우수성이 높이 평가돼 최종 채택됐다.

이번 한지는 마을 인근 농가에서 재배한 다펠나무를 원료로 삼아 삶고 짚질을 벗긴 뒤 다펠죽으로 만들어 전통 한지 장인이 외발뜨기 방식으로 정성껏 제작했다. 완성된 한지는 덕수궁 내 창조지와 벽지로 활용될 예정이다.

대송한지마을 관계자는 "이번 궁궐 남품은 전통 한지의 가치를 다시 인정받은 의미 있는 성과"라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반할주택 100호 공급...청년·신혼 정착 지원

320억 투입 순화리 일원 조성 시세 절반 임대·분양 전환 제공

순창군이 전북특별자치도·전북개발공사가 공동 추진하는 '전북형 반할주택' 공모사업에 최종 선정됐다.

군은 이번 선정으로 총 320억 원(전북개발공사 160억 원·도비 80억 원 포함) 규모의 사업비를 확보했으며, 순창읍 순화리 일원에 청년·신혼부부용 반할주택 100호를 2031년까지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북형 반할주택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 인구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기획된 사업으로, 이번 공모 선정이 지역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반할주택은 시세의 약 5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춘 공공임대주택으로, 10년 임대 이후 분양 전환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된다. 초기 주거비 부담은 낮추면서 장기적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



<사진=순창군>

도 열어둔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정착 지원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단순한 주택 공급에 그치지 않고 정주 여건 개선, 인구 유입 확대, 지역 활력 회복까지 동시에 겨냥한다는 점도 이번 사업의 강점이다.

이번 선정으로 청년과 신혼부부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새로운 주거 기반이 마련될 전망이다.

군은 관련 행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반할주택 사업 선정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고 지역 정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디지털 헬스 기반 지역의료 혁신 포럼 개최

서울대·카카오헬스케어 참여 디지털 헬스 실증 업무협약 체결

남원시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지역의료혁신센터는 지난 3일 남원시위트호텔 컨벤션센터에서 '지역 완결형 지역의료혁신(남원 디지털 헬스 실증 사업)'을 주제로 제3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좌장을 맡은 가운데 최경식 남원시장, 서울대학교 강대희·이정표·최지영 교수, 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 오진규 남원의료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기조강연에 나선 한용재 남원시보건의료장은 남원시 보건의료 현황과 주요 쟁점을 짚어보고, ICT를 활용한 보건의료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지

는 세션에서는 △지역의료혁신센터 소개(이정표 교수) △스카카오 파스타를 활용한 지역주민 건강관리(강은경 카카오헬스케어 상무) △디지털 기술 기반의 통합 건강관리 체계(최지영 교수) 등을 주제로 수도권과의 의료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서비스 도입 방안이 다뤄졌다.

특히 이번 포럼에서는 고령층의 디지털 헬스 리터러시를 고려한 맞춤형 역량 강화 프로그램이 주목받았다.

이와 관련해 남원시와 서울대 지역의료혁신센터, 카카오헬스케어는 '남원시 디지털 헬스 리더십 데이터 구축 전략'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세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는 지속 가능한 디지털 건강관리 모델 개발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대학생 전입 혜택 홍보...지역 정착 유도

우석대 방문 주소 전입 혜택 안내 연 최대 30만원 지원 제도 운영

완주군이 우석대학교를 찾아 신입생과 재학생에게 주소 전입 혜택을 안내하며 대학생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홍보 활동에 나섰다. 이번 활동은 완주군에 주소를 둔 대학생들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지원 사업을 널리 알려 학생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마련했다.

군에서 추진하는 전입 학생 생활 안정 장학금 지원 사업은 완주군으로 주소지를 옮긴 관내 대학생에게 1년

에 10만 원씩 최대 30만 원을 지역 사랑 상품권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전입 장려 지원금으로 세대당 5만 원 상당의 로컬푸드 꾸러미와 종량제 봉투 10매를 추가로 제공해 실질적인 생활 혜택을 준다.

안내 부스에서는 전입지원사업 뿐만 아니라 다양한 청년정책사업을 함께 소개하며 학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심미정 인구정책과장은 "앞으로도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춘향제, 실시간 교통 앱 도입...주차·셔틀 '한눈에'

임시주차장·통제구간 정보 제공 QR코드 도입...앱 접근성 개선

남원시가 오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개최되는 '제96회 춘향제' 기간 동안 방문객의 교통 편의를 높이기 위해 교통정보 안내 기능을 대폭 강화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해당 앱은 축제 기간 중 운영되는 임시주차장 위치와 차량 통제 구간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됐으며, 특히 셔틀버스 노선 안내와 함께 실시간 위치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별도의 문의 없이도 필요한 교통정보를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행사장 이동 편의 향상은 물론 도심 교통 혼잡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시민과 관광객들이 해당 서비스를 더욱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강화할 방침이다. 축제 관

련 현수막과 주차장·셔틀버스 안내 홍보물 등에 QR코드를 삽입해, 별도의 검색 과정 없이 스마트폰 스캔만으로 남원시 교통정보 앱을 즉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모바일 교통정보 앱을 적극 활용하면 더욱 쾌적하고 편리하게 춘향제를 즐길 수 있을 것"이라며, "성공적인 축제 운영과 원활한 교통 흐름을 위해 많은 이용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여성노인 복지 강화...전용 경로당 개소

봉동 원둔산 여성경로당 개소식 여성 전용 생활 맞춤형 공간 조성

완주군 봉동읍 원둔산 마을 어르신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여성 전용 쉼터가 마련되어 지역 공동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

지난 3일 완주군은 지역 주민 50여 명과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봉동읍 원둔산 여성경로당 개소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행사는 경과 보고를 시작으로 축사와 테이프 끊기 식, 주민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했으며 지역 어르신들의

새로운 보금자리 탄생을 함께 축하하는 소통의 장으로 꾸며졌다.

새로 문을 연 여성 경로당은 기존에 운영하던 장난감 도서관이 이전하면서 발생한 유휴 공간을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복지 공간으로 재탄생시킨 사례다. 그동안 마땅한 휴식 및 담소 공간이 없어 불편을 겪었던 지역 어르신들이 생명을 위해 굳은 공공 자산을 효율적으로 재정비해 쾌적한 시설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개소는 단순히 공간을 늘리는 차원을 넘어 남성과 여성 어르신의 서로 다른 생활 양식과 복지 수요

를 세심하게 반영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성별에 따른 취미 활동의 차이와 이용 형태를 고려해 공간을 분리 운영함으로써 어르신들이 심리적으로 더욱 편안한 환경에서 자율적인 커뮤니티 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 행정'을 구현했다.

김미숙 경로장애인과장은 "어르신들이 성별과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소통의 거점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완주군 어르신들의 실질적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노인복지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성인문해교육 공모 16년 연속 선정

교육부 공모 선정 3650만원 확보 스마트폰·키오스크 교육 대폭 강화

남원시가 교육부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이 주관하는 '2026년 성인문해교육 지원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돼 국비 3,65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으로 남원시는 지난 2010년부터 16년 연속 공모 선정이라는 쾌거를 이루며,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평생학습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성인문해교육은 경제적·사회적 사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확보한 예산

을 활용해 어르신 대상의 기초 한글 교육을 운영하는 한편,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소외되지 않도록 '디지털 문해교육'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특히 스마트폰과 키오스크 사용법 등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통해 어르신들이 겪는 일상의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데 집중한다.

또한,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도 확대 추진한다. 거동이 불편하거나 지리적 제약으로 평생학습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전문 강사가 경로당과 정으로 배움의 기회를 놓친 성인들에게 기초적인 읽기, 쓰기, 셈하기를 비롯해 일상생활에 필요한 문해 역량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확보한 예산

남원시, 행정안전부 방문 특교세 64억 규모 지원 건의

남원시가 2026년 상반기 지역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에 총 64억 원 규모의 특별교부세 지원을 건의했다.

이성호 부시장은 지난 3일 행정안전부 교부세과(과장 지용규)를 방문해 현안수요 6건을 중심으로 사업 추진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재난안전수요 4건은 지난 1일 최경식 시장이 해당 부서에 별도 건의한 바 있다.

이번에 건의한 사업은 현안수요 6건 40억원, 재난안전수요 4건 24억 원으로, 문화 인프라 확충과 농촌 정주여건 개선, 관광 기반시설 정비, 재난 예방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직접적인 과제들이다.

주요 건의 사업으로는 남원 레코드테크 조성사업(10억원), 대산면 청년농촌보급자리 조성사업(10억원), 식성마을 관광 우회도로 개설사업(10억원), 지리산 고향올래 조성사업(4억원), 남원 동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건립(3억원),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3억원) 등이 있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감성 소하천 정비(10억원), 세전배수장 긴급 기능보강(5억원), 남원중앙초 어린이보호구역 안전개선(5억원), 재난취약계층 스마트 마을방송 구축(4억원) 등을 건의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모바일 앱·스마트워치 24주 헬스케어 참여자 모집

순창군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 참여자를 모집한다.

모바일 헬스케어 사업은 스마트폰 모바일 앱과 스마트워치 등을 활용하여 보건의료원 간호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이 24주 동안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대면 건강관리 프로그램이다.

특히, 만성질환으로 이행되기 전 단계의 건강 위험요인을 관리해 질병으로 진행되는 것을 예방하고,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참여 대상은 만19세이상 65세미만 순창군민 또는 순창군 소재 직장인 중 건강관리가 필요한 사람이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등 만성질환 진단을 받고 약물을 복용 중인 경우에는 참여가 제한된다.

참여자 모집은 오는 24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자에 대해서 27일부터 5월 8일까지 사전 건강검사를 실시해 최종참여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참여자에게는 스마트워치 등 건강관리 지원물품이 제공되며 24주 동안 △건강·영양·신체활동 분야 전문가 상담 △중간 및 최종 건강검진 △모바일 앱을 통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등이 제공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AI·IoT 기술 활용 어르신 건강관리 본격화

완주군이 지난 1일부터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한 어르신 건강관리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스마트기기와 모바일 '오늘 건강' 앱을 활용해 어르신의 건강 상태를 비대면으로 실시간 확인하고 맞춤형 건강 상담을 제공하는 활동이다.

참여자에게는 블루투스 연동이 가능한 손목 활동량계와 혈압계, 혈당 측정기, 화면형 인공지능 스피커 등 최대 4종의 건강 측정 기기를 지원한다.

사전 측정은 완주군 보건소에서 진행하며 신체 계측과 건강 측정부터 사전 평가부 작성, 기기 배부 및 연결, 과제 부여, 측정 방법 교육까지 체계적인 과정으로 구성했다.

특히 사전 선별 검사(스크리닝)를 통해 개인별 건강 상태를 '건강군, 전려약군, 허약군' 등 세 단계로 분류하여 맞춤형 건강 관리 과제를 부여한다.

참여자들은 앞으로 6개월 동안 지급 받은 기기를 통해 스스로 건강을 측정하고 부여된 과제를 실천하게 된다. 보건소는 측정된 자료를 분석해 전화 상담이나 직접 방문 서비스를 통해 건강 관리를 촘촘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완주=김명곤기자

장수군, 만남의 광장 임시직매장 및 주말 플라마켓 운영

장수군은 관내 우수한 농특산물을 직접 만나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해 4일부터 만남의 광장에서 임시직매장과 주말 플라마켓을 본격 운영했다고 밝혔다.

임시직매장 '장수상회'는 만남의 광장 내 컨테이너부스에서 운영되며, 지역 농산물과 가공식품을 비롯해 컵라면, 스낵 등 다양한 상품을 상설 판매해 방문객들에게 높은 인기를 끌고 있다.

또한 '레드푸드 광장 플라마켓'은 4월부터 11월까지 매주 토요일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농산물과 가공품, 수공예품, 먹거리, 체험 프로그램 등 다양한 품목을 선보여 방문객들에게 풍성한 즐거움과 볼거리를 제공한다.

장수군은 이번 사업을 통해 만남의 광장을 지역 먹거리와 농특산물, 체험이 어우러진 복합 교류 공간으로 육성하고, 지역 농가와 소상공인의 소득 증대 및 판로 확대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 강진면, 봄꽃 식재로 생기 넘치는 거리 조성

임실군 강진면(면장 김영숙)은 봄철을 맞아 시가지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일, 주요 도로변 화분에 봄꽃인 팬지 3,000본을 심으며 산뜻한 봄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이번 꽃 식재는 포근해진 날씨 속에 강진면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에게 밝고 따뜻한 분위기를 전하고, 주민들의 일상에도 생기를 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김영숙 면장은 "형형색색의 봄꽃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지친 주민들과 방문객들이 잠시나마 여유와 위로를 느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계절에 어울리는 꽃을 지속적으로 식재해 쾌적하고 아름다운 거리환경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군, 비상경제 TF 가동 민생안정 총력

진안군은 중동 정세 불안과 전쟁 장기화에 따른 유가 상승 및 물가 불안 등 대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경제 대응체계를 본격 가동하고 민생 안정 대책 추진에 나섰다.

군은 진안 부군수를 단장으로 하는 '중동 상황 비상경제대응 TF'를 구성하고, 지난 2일 첫 회의를 개최해 분야별 대응방안과 추진사항에 대해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전쟁 장기화에 따른 원자재 가격 상승과 물류비 증가 등 파급 영향을 반영하여 민생물가 안정, 석유가격 안정, 수출기업 지원 등 주요 분야별 대응 계획을 공유하고, 부서 간 협업체계 강화 및 현장 중심 대응 방안을 중점 논의했다.

진안군은 현재 민생 물가 안정을 위해 장날(4일·9일) 중심으로 물가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가격 동향을 공개하고 있다. 또한 구내식당 휴무일을 활용한 착한가격업소 이용 활성화 노력, 전통신사 및 청년물 집포 71개소에 대한 사용자료 30% 감면을 추진 중이다.

석유가격 안정 분야에서는 관내 주유소를 대상으로 가격 안정 협조를 요청하고 석유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으며, 특별점검단을 운영해 불공정 거래 여부를 수시 점검하고 있다.

군은 앞으로도 물가 동향 관리 강화, 착한 가격업소 확대, 에너지 유통 질서 점검, 기업 애로 해소 등 현장 중심 대응을 지속 추진하며 민생안정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진안=전결빈 기자

임실군, 옛 물길 되살린다

도인천 생태복원 본격화 1단계 임실천~성수도인천 공정률 37% 순항

임실군이 옛 물길을 되살려 수변환경을 복원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하천의 인공구조물(콘크리트 호안, 낙차보 등)을 생태호안과 자연형 여울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하천 정비로 훼손된 생물 서식처를 복원하고 종적 연결성을 회복해 수생태계의 건강성을 도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사업 구간은 총 3.3km로, 1단계(임실천 합류지점~성수면 도인천교)와 2단계(성수면 도인천교~성수면 도인저수지)로 나누어 진행된다. 구간 내에는 생태여울, 생태수로, 생태호안, 생태체험공간 등이 조성될 계획이다.

특히, 성수면 도인천교에서 임실천 합류지점에 이르는 1단계 구간(L=1.16km)은 현재 공정률 37%를 보이며 공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군은 오는 5월 중 1차분 사업을 준공하고, 이어 6월 2차분 착공에 들어가 2027년 6월 1단계 사업의 마침표를 찍을 예정이다.

이어지는 2단계 사업은 성수면 도인천교에서 도인저수지(L=2.14km)를 대



임실군이 옛 물길을 되살려 수변환경을 복원하고 군민에게 쾌적한 친수공간을 제공하는 '도인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임실군>

상으로 하며,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총사업비 59억원(도비 29.5억, 군비 29.5억)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군은 하천선형 직강화(직선화)와 보·낙차공 등으로 단절된 수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은 물론, 시설제방 보강을 통해 치수 안전성을 확보하고 이수·환경 기능을 회복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생태호안(3.42km) 및 자연형 여울(10개소) 조성 △교량 재가설(5개소) △배수구조물(23개소) 정비 등이 포함된다.

군은 본 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해 지난 2024년 10월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을 완료했으며, 2025년 하천기본

계획 수립과 타당성 검토용역 등 행정절차를 철저히 마쳤다.

올해 4월부터는 본격적인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하여 2027년 10월 까지 설계를 완료하고, 같은 해 11월 본 공사에 들어갈 계획이다.

또한, 사업 구역 내 무단경작 등 발생할 수 있는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 추진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이해관계인과 긴밀히 협의함으로써 주민 불편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공사가 완료된 후인 2030년부터 2033년까지는 사후 모니터링 및 유지관리를 통해 복원된 생태계의 안정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게 된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2026년 사회조사 실시

주민 삶의 질·정책 수요 분석 실용적인 정책 수립 기반 마련

장수군은 오는 9월부터 29일까지 군민의 삶의 질과 사회적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2026년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사회조사'를 실시한다.

사회조사는 군민의 주관적 의식과 사회적 관심사를 체계적으로 분석해 정책 수립과 평가, 학술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매년 시행하는 국가

승인 통계조사이다.

이번 조사는 국가데이터처가 선정한 관내 810개 표본 가구의 만 15세 이상 가구주와 가구원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조사원이 직접 방문하는 면접조사와 가구가 직접 작성하는 자기기입식 조사, 인터넷 조사 방식을 병행해 실시된다.

조사항목은 교육, 보건·의료, 주거·교통, 환경, 여가·문화, 안전, 장수군 특성 항목 등 총 7개 부문 50여 개 항목으로

구성됐으며, 이를 통해 주민의 생활 만족도와 정책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할 계획이다.

장수군은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원 20명을 투입하고 사전 교육을 실시하는 등 철저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현수막을 게시하는 등 응답률 제고를 위한 홍보 활동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고령·영세농업인 대상 농작업 대행 운영

지속가능한 영농 활동 영위 일손부족문제 해소 기대

임실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고령·영세농업인을 대상으로 경운, 두둑 성형, 비닐피복의 작업 대행을 오는 6월까지 집중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농작업 대행은 상대적으로 일손과 장비 확보가 어려운 고령영세농의

농업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군은 숙련된 인력과 전용 농기계를 투입하여 현장 지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관내 만 70세 이상의 농업인인면서, 경작면적이 1ha 미만의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하며, 대행료는 경운, 두둑성형, 비닐피복 각 m당 30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데 기여

하고 있다. 신청 방법은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등 서류를 구비하여 중부농기계 임대사업소(임실읍 봉황로 371)에 방문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오는 4월 30일까지이다. 접수된 필지는 작업 시기에 맞춰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기상 상황에 따라 일정이 조정될 수 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운영

진북대와 협력 12월까지 교육 진행

무주군이 전북대학교와 협력해 '찾아가는 생활과학교실'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참여 대상 초·중·고 학생에서 중·고생까지로 확대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를 위해 무주군은 무주교육지원청과 협력해 무주초등학교 등 지역 내 6개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12월까지 150명을 대상으로 '과학문화 탐험대'를 주제로 전통과 현대 과학을 아우르는 '단절 속에 숨은 과학', '하늘을 나는 방패연', '팬퍼루트 K-pop을 듣다' 등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프로그램은 실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된 첨단과학기술을 토대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 실험·체험을 하며 과학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또한 교실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운영돼 교육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지



역 학생들에게도 공평한 학습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성 무주군청 인구협력과 평생교육팀장은 "단순한 이론 중심 교육에서 벗어나 창의적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라며 "특히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 속에 담긴 과학적 원리를 탐구하는 과정이

학생들의 흥미를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체험 중심의 학습을 진행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통 생활 속 과학 지식부터 최신 과학기술까지 폭넓은 체험 학습이 과학을 친숙하고 흥미롭게 받아들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덧붙였다.

/무주=최희호 기자



장수군, '치유의숲' 재개장

숲테라피·명상·맨발걷기 등 치유 프로그램 확대 운영

장수군은 천천면 와룡자연휴양림에 있는 치유의숲이 재개장해 본격 운영에 돌입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이번 재개장은 2025년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이후 처음으로, 보다 다채롭고 체계적인 치유 프로그램을 갖추고 방문객을 맞이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더한다.

그린장수 치유의숲은 심신의 치유와 회복을 위한 전문 힐링 공간으로 운영되며, 자연 속에서의 치유 효과를 극대화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숲속 환경

을 활용해 스트레스 완화와 심리적 안정을 돕는 숲테라피를 비롯해, 참가자들이 내면의 평화를 찾고 깊은 이완 상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지원되는 명상 테라피, 발바닥 자극을 통해 신체 활력을 높이는 황토길 맨발걷기 체험 등이 운영된다.

이를 통해 방문객들은 일상에서 벗어나 자연과 교감하며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군은 앞으로도 치유의숲을 중심으로 계절별 맞춤형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고, 웰니스 관광 자원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 콘텐츠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장수=최진수 기자

임실군, 과수화상병 사전방제·청정지역 유지 총력

농가대상 약제 지원·교육 추진

임실군(군수 심민)은 과수화상병의 지역 내 유입 차단을 위해 사과, 배 재배농업인 39농가, 24.2ha에 대해 3회 분 약제를 지원하고 방제 교육을 추진했다고 전했다.

과수화상병은 사과, 배 등 장미과 식물에 발생하는 세균성 감염병으로 감염 시, 가지·잎·꽃 등에 발생하여 과실이 불에 탄 듯 변하다가 식물 전체가 고사하는 증상이 발생하게 된다.

과수화상병은 2015년부터 국내에 발생하여 국가 검역 병해충으로 지정됐으며 발생 시에 적절한 치료제가 없어 발병한 나무를 제거하거나 과원을 폐원하는 등 농가에 큰 피해가 따르

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

군은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 3회 방제(개화전 1회, 개화기 2회)를 실시하며, 개화전 방제는 사과의 경우 신초 발아 전 녹색기·전엽기, 배는 꽃눈 발아 직후인 발아기·전엽기에 살포해야 한다. 개화기 방제는 기상 관측 정보를 바탕으로 꽃 감염 위험도를 예측해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는 시기에 약제를 살포하는 것이 중요하다.

천소영 임실군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임실군의 과수화상병 청정지역 유지를 위해서는 농가의 적극적인 약제 방제 참여가 중요하다"며, "교육을 통해 당부한 사항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고 철저한 예방과 예방"을 강조했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여성농업인 역량 강화 주력

여성농업인 전문교육 진행

'이류 수선' 교육·친환경 생활 실천

무주군은 여성농업인들의 가사 부담을 덜고 친환경적인 소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2026년 여성농업인 전문교육(이류 수선)'을 진행해 호응을 얻고 있다고 밝혔다.

수강생은 총 20명으로 오는 24일까지 매주 금요일 농민회 소회의실에서 '소잉아카데미' 운영진 대표로부터 △의류 수선의 기초 이론, △재봉틀 활용법, △수행이 지난 옷을 최신 스타일로 바꿔보는 실습 과정을 수강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이번 교육은 평소 버려지거나 방치되기 쉬운 옷을 직접 수선·리폼하는 기술을 배워 생활비

를 절약하고 자원 재활용을 생활화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하현진 무주군농업기술센터 농업지원과 생활지원팀장은 "이번 교육이 여성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가사 도움은 물론, 환경 보호라는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는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며 "앞으로도 농촌 여성들의 역량 강화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 발굴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은 올해 농촌 여성의 전문성 강화에 집중하며 지역 내 여성단체 회원들을 대상으로 '홈패션', '디지털 만들기', '말하기' 교육 등 삶의 질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무주=최희호 기자

민주평통 임실군협, 사선대에 '평화의 바람길' 조성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임실군협의회(회장 염상열)는 지난 2일, 임실군 사선대 국민관광지에서 자문위원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DMZ에서 고이 답아 온 평화의 바람(HOPE)'을 상징하는 바람개비를 설치하여 '함께 걷는 평화의 바람길'을 조성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3월 자문위원들이 과수 DMZ와 강화도 등 분단의 현장을 직접 방문해 평화의 소중함을 느끼고 체험한 생생한 감동을 많은 이들과 함께 공유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자문위원들은 바람개비 날개마다 분단의 현장에서

고이 답아 온 평화의 염원을 정성껏 새겨 넣었으며, 이를 '평화의 길' 산책로를 따라 설치하며 일상속에 평화의 바람을 전달하는 상징적인 공간을 일구어냈다.

염상열 협의회장은 "분단의 현장에서 직접 보고 느낀 평화의 소중함이 이 바람개비를 통해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따뜻하게 전달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함께 걷는 평화의 바람길'이 우리 임실의 평화 문화를 상징하는 명소가 될 수 있도록 정성껏 꾸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군산 한상근 집배원, 피투성이 시민 살려

우정사업본부 위기대응 매뉴얼 따른 신속 조치 '지역사회 안전망' 특목

가스폭발 위험 속에서도 군산대야우체국 한상근 집배원은 시민 생명을 구했다.

전북지방우정청 군산대야우체국 소속 한상근 집배원은 지난 2월 22일 우편물 배달 중 가스폭발 사고 현장을 목격하고 신속한 응급조치를 펼치며 쓰러진 시민의 생명을 구했다.

한 집배원은 이날 군산시 회현면 풍성길 일대 평소와 다름없이 우편물을 배달하던 중 거대한 폭발음을 청취했다.

대형 사고임을 인지한 한 집배원 그는 주저 없이 굉음이 발생한 곳으로 바로 달려갔다. 사고 현장에는 이마에서 다량의 피를 흘리며 쓰러진 60대 시민 한 모



씨가 있었으며 한 씨는 극심한 출혈과 쇼크로 인해 의식이 혼미해져 생명이 위태로운 상태였다.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한 집배원은 즉시 우정사업본부 위기대응 매뉴얼에 따

를 시도하며 응급조치를 이어갔다.

또 주변 지인을 수소문해 환자의 자녀에게 연락을 취하고 보호자가 신속히 상황을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왔다.

119 구급대원에게 환자를 안전하게 인계한 한 집배원은 사고 현장이 수습된 것을 확인한 후에야 다시 우편물을 싣고 묵묵히 남은 배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상근 집배원에 따르면 "폭발음을 듣는 순간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다는 생각에 몸이 먼저 반응했다"며 "평소 우체국에서 정기적으로 받은 응급처치 및 위기 상황 대응 교육이 집착하게 행동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지방우정청은 일선 집배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위기 상황 시뮬레이션 및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정읍시청 민원지적과, 고창·임실과 상호 기부

고창·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 각 200만원씩 전달

정읍시청 민원지적과 직원들이 고향사랑기부금을 활용해 고창군·임실군과 상호 기부 교류를 추진하며 자치단체 간 상생 협력의 새로운 모범을 만들었다고 지난 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민원지적과 직원들은 고창군과 임실군에 고향사랑기부금 200만원을 직접 납부했다.

이에 두 지자체 담당 부서에서도 화답해 정읍시에 상호 기부로 교류

에 참여했다. 이는 단순한 업무 협력을 넘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기부에 나섰다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교류는 서로 다른 지역 공무원들이 제도의 취지를 직접 실천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기부 문화의 확산을 이끄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다.

강인식 민원지적과장은 "이번 상호 기부를 계기로 고창군, 임실군과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 황등면 김길순씨, 이웃돕기 성금 5,000만원 쾌척

"남은 재산, 이웃 위해"

익산시 황등면에 거주하는 70대 어르신 나눔이 지역사회에 깊은 울림을 전하고 있다. 황등면은 지난 3일 지역 주민 김길순(78세)씨가 이웃돕기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기탁은 황등면 내 개인 후원 사례 중에서도 이례적으로 큰 규모다.

김길순씨는 현재 홀로 생활하고 있으며, 오랜 세월 모아온 금융 재산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위해 사용하고자 기부를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탁된 성금은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



회를 통해 지정기탁 처리된 후 지역 내 저소득층과 사회복지시설 이용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사회복지사업에 활용될 예정이다.

김길순씨는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나눔리더' 인증을 받을 예정이다.

김길순씨는 "생활 형편이 넉넉하지는 않지만, 나눔을 실천하고 싶다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가져왔다"며 "어려운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 비봉면 요덕사, 성금 1,000만원 쾌척

구자홍 주지스님 "부처님 자비 관내 어려운 이웃에 전해지길"

완주군 비봉면 내원리에 위치한 전통 사찰 요덕사(주지스님 구자홍)가 최근 비봉면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 현금 1,000만 원을 기부하며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이날 기부는 자비의 마음을 바탕으로 어려운 이웃과 온정을 나누고자 하는 뜻에서 마련된 것으로, 기부금은 지역 내 저소득 가구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복지사업에 소중히



사용될 예정이다. 요덕사는 지역 주민들과 함께 호흡하며 수행과 나눔을 실천하는 전통사찰로

평소에도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위해 나눔 활동을 실천해오고 있다.

요덕사 구자홍 주지스님은 "부처님의 자비가 관내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모았다"며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국쇠철 비봉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장은 "이웃을 향한 깊은 배려와 나눔 실천에 감사드린다"며 "전해주시는 뜻이 필요한 곳에 닿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 [승진] 총경 → 경무관

박종삼(58) 전북청 수사과장 계급 총경 전북 완주 출신 전주 영생고등학교 동국대학교(경찰행정학) 졸업

송승현(57) 세종청 경무기획과장 계급 총경 전북 완주 출신 전주중앙고등학교 경찰대학교(법학과) 졸업

신자봉 전북연합회, 모악산서 산불예방 캠페인 진행

식목일 앞두고 산불예방 민·관 협력 중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푸른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로 산불예방 캠페인을 지난 3일 모악산에서 진행했다.

산림청 통계에 따르면 전체 산불 원인의 약 30%가 '입산자의 부주의'에서 발생하며, 농촌 지역의 논·밭두렁 및 쓰레기 소각 등 일상적인 활동에서 비롯되는 경우도 많다.

현장 대응과 진화 장비 확충만으로는 막을 수 없는, 행정기관의 예방 활동과 진화 장비 확충에 더해,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인 참여 등 민간 차원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다.

신천지 자원봉사단 전북지역연합회(연합회장 이용우)은 단순한 일회성 행사를 넘어, 지역 사회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13년째 꾸준히 산림 보호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전북지역연합회의 활동은 산불 예방에만 머물지 않고, 실제 피해 지역을 찾아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돕는 밀착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아울러 훼손된 자연을 가꾸고 본래의 모습으로 되돌리기 위한 산림 자원 육성에도 동참하고 있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봄철은 화재예방의 계절



1. 불장난, 모닥불 금지



2. 풍선등소형 열기구 날리기 금지



3. 산림 인근지역 불 피우는 행위 금지



4. 농경지 정리 및 농산부산물 소각금지

사설

전북지사 경선 재편, 고품격 정책 대결 기대한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관영 전북도지사를 전격 제명하면서 전북도지사 경선 판도가 순식간에 요동치고 있다. 청년 당원들과의 지역 자리에서 금품 제공 의혹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로, 당 지도부가 만장일치로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사안의 심각성을 방증한다. 이로써 경선은 안호영 의원과 이원택 의원 간 양자 대결로 압축됐고, 지역 정치권은 물론 도민들의 시선도 두 후보의 행보에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후보 교체를 넘어 정치적 책임과 도덕성의 기준을 다시 묻는 계기가 되고 있다. 공직 후보자에게 요구되는 최소한의 윤리의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어겼을 때, 어떤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지를 분명히 보여줬다.

동시에 남은 후보들에게는 더욱 무거운 책임이 주어졌다. 도민들은 더 이상 네거티브에 관대한 흑색전 등 구태 정치나 불투명한 관행이 반복되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경선 구도는 빠르게 재편되고 있다. 안호영 의원은 '계승과 확장'을 기치로 내걸며 기존 도정의 성과를 자산으로 평가하고, 정책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는 사실상 김관영 전 지사의 지지층과 조직을 흡수하려는 행보로 해석된다.

반면 이원택 의원은 직접적인 공세를 자제한 채 권리당원을 중심으로 한 조직 결집에 집중하며 안정적인 기반 다지기에 나서고 있다. 서로 다른 전략이 맞부딪히며 경선은 한층 치열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세력 다툼이나 상대를 흠집 내기 위한 네거티브 경쟁이 아니다. 이미 한 차례 도덕성 논란으로 경선이 큰 상처를 입은 상황에서 또다시 이전투구 양상이 반복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 정책과 비전이 실종된 채 감정적 공방만 난무하는 선거는 도민 정서와 지역 발전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두 후보는 이번 경선이 전북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요한 분수령임을 직시해야 한다.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전환, 지역 경제 활성화 등 전북이 직면한 과제는 결코 가볍지 않다. 이러한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가 더 깨끗하고, 더 유능하며, 더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른바 '누가 누가 잘할까'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도민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선거의 모습이다.

과거에도 전북 정치권은 예기치 못한 변수로 판세가 뒤바뀐 사례가 있었다. 그러나 그때마다 최종 선택은 결국 도민의 몫이었고, 그 기준은 언제나 합리성과 미래 비전에 있었다. 이번 역시 마찬가지다. 일시적인 조직 결집이나 세력 이동이 아닌, 도정 운영 능력과 정책 경쟁력이 승부를 가르는 본질적 기준이 되어야 한다.

안호영·이원택 두 후보는 끝까지 품격을 지키는 페어플레이로 도민 앞에 서야 한다. 상대를 끌어내리는 대신 자신을 증명하고, 비난이 아닌 대안을 제시하는 선거를 만들어야 한다. 그것이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전북 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길이다. 이번 경선이 갈등과 분열이 아닌 성숙한 민주주의의 장으로 기록될 수 있을지, 두 후보의 선택에 달려 있다.

순창 고추장 부부의 '따뜻한 손길' 이웃돕기 성금 기탁

민속마을 권장주·양내승 성금 500만원 기탁

순창군 민속마을에 위치한 내고향 전통 고추장 대표 권장주·양내승 부부는 최근 순창군청을 방문해 지역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해 지역사회에 따뜻한 감동을 전했다.

권장주·양내승 부부는 "오랜 기간 고추장 민속마을에서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며 "그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자 성금을 기탁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어려운 이웃을 돕는 나눔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에도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권장주·양내승 기탁자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며 "기탁해 주신 성금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익산시 한농연 "학생들이 꿈과 희망 키우길"

익산사랑재단장학재단에 기탁

익산 농업인들의 정성이 담긴 장학금이 지역 인재 양성의 밑거름이 되고 있다.

익산시는 지난 3일 (사)한국농기계농업경영인익산시연합회(이하 한농연)가 장학금 365만 원을 익산사랑장학재단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장학금은 한농연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익산시 미래를 이끌어갈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보다 나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됐다.

특히 한농연은 지역 인재 육성을 위해 올해로 6년째 장학금 기탁을 이어오고 있다.

서상원 익산시 한농연 회장은 "지역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다"며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남원충열사, 2026년 춘향대제 봉행

정유재란 순절 충신 넋 기려

남원충열사(사장 양맹식)는 지난 3일 오전 10시 남원충열사 사당에서 정유재란 당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충신 26위의 충절과 위훈을 기리는 춘향대제를 봉행했다.

춘향대제는 매년 음력 2월 중정일에 봉행하는 전통 제례로 정유재란 시 남원성 전투에서 순절한 충신들에 향사를 올리는 의식이다.

이날 대제는 분헌례를 시작으로 초헌례, 아헌례, 종헌례, 음복례, 망료례 순으로 진행됐다. 초헌례에서는 초헌관이 첫 잔을 올리고 대축이 축문을 낭독했으며, 이어 아헌관과 종헌관이 차례로 잔을 올리며 제례를 봉행했다.

한편 남원충열사는 충신들의 충절을 기리고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해 매년 춘향대제를 이어오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익산 미륵사지 당간지주
(보물 제236호)

-분류 - 유적건조물, 당간
-지정일 - 1963년 1월 21일
-시대 - 통일신라시대
-소재지- 익산시 금마면 기양리 93-1, 79, 80-2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4월 6일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윤관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국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국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완주지국 010-3672-0308
발백지국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완주지국 010-3672-0308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4월의 노래 / 박목월

목련꽃 그늘 아래서
벨벳의 편지를 읽노라
구름꽃 피는 언덕에서
피리를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이름 없는 항구에서 배를 타노라
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어린 무지개 계절아
목련꽃 그늘 아래서
긴 사연의 편지를 쓰노라
클로버 피는 언덕에서
휘파람을 부노라

아, 멀리 떠나와
깊은 산골 나무 아래서 별을 보노라
돌아온 사월은
생명의 등불을 밝혀둔다
빛나는 꿈의 계절아
눈물 어린 무지개 계절아

시인 약력 : 1915년 경남 고성 출생. 대구 계성고보를 졸업했다. 1959년 한양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부교수, 교수, 문리대 학장을 역임했다.

1933년 '어린이'에 동시 통딱딱 통딱딱이 특선돼 문단에 데뷔했다. 1946년 조지훈, 박두진 등과 청록파를 결성하고 청록집이라는 시집을 발간했다. 청록집에 실린 그의 시

로는 임, 윤사월, 청노루, 나그네, 하관(下棺), 가정 등이 있다. 군가인 '전우'를 비롯 포스코, 한국일보 사가 등을 작사하기도 했다.



시민의 거실이 된 새 청사, 익산시의 백년 도약 연다!



미륵사지 석탑 품은 신청사 완공 행정·문화·휴식 아우러진 복합거점

1970년 지어졌던 옛 익산시청사가 50여 년의 세월을 뒤로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다. 비가 새고 벽이 갈라지던 낡은 청사는 이제 사라졌지만, 그 자리엔 익산의 자부심인 미륵사지 석탑의 유려한 곡선을 닮은 신청사가 웅장하게 솟았다. 관청을 뜻하는 '청(廳)' 자는 집을 의미하는 '엄(宀)' 아래에 '들'을 청(廳) 자가 담겨있다. 즉, 시청은 '시민의 목소리를 듣는 집'이라는 뜻이다. '권위'라는 딱딱한 옷을 벗고 '소통'이라는 편안한 옷으로 갈아입은 익산시 신청사. 시민의 삶 속으로 더 깊숙이 다가간 그 변화의 현장을 면면이 살펴본다. (편집자 주)

◆ 정밀진단 D등급의 위기를 기회로...56년 만에 이뤄낸 '시민 숙원'

익산시 신청사 건립은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였다. 1970년 지어진 옛 청사는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을 만큼 노후화가 심각했다.

붕괴 위험이라는 불안감 속에서 시민들은 좁은 복도를 오가야 했고, 공무원들은 흠어진 사무실 탓에 행정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야 했다.

결국 익산시는 2021년 11월,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신청사 건립의 첫 삽을 떴다. 시는 행정 공백을 없애기 위해 공사를 2단계로 나눠 치밀하게 진행했다.

2024년 9월, 10층 규모의 본동 건립(1단계)을 마쳐 부서 입주를 완료했고, 최근 옛 청사를 철거한 부지에 시민 편의 공간을 조성하는 2단계 공사까지 마무리하며 대장정의 마침표를 찍었다.

이제 흠어진 행정 기능은 하나로 결합했고, 시민들에게 문화와 휴식을 제공하는 진정한 '복합 거점'으로 거듭나게 됐다.

◆ 미륵사지 석탑 닮은 외관... '시민 친화'로 채운 층별 공간

신청사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익산의 정체성을 담은 외관이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미륵사지 석탑'을 본따 설계된 건물은 단단하면서도 부드러운 곡선미를 자랑한다. 밤이 되면 석탑 부분을 본뜬 외벽에 은은한 조명이 켜져 익산 시내를 아름답게 밝히는 새로운 랜드마크가 됐

다. 건물 내부 구성은 철저히 '시민'을 향해 있다. 지하 2층부터 지상 10층까지 이뤄진 신청사는 크게 시민 친화 공간과 업무 공간으로 나뉜다. 1



층과 2층은 시민들이 언제든 편하게 머무를 수 있는 개방형 공간이다.

전북은행과 농협은행이 입점해 금융 편의를 돕고, 작은도서관과 시민정보화교육장, 시민 동아리방이 마련돼 배움과 소통의 즐거움을 더한다. 400여 석 규모의 다목적홀은 대규모 행사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활동 공간으로 쓰이게 된다.

1층 민원실은 개방형으로 설계돼 시민들이 행정의 문턱을 느낄 수 없도록 했다. 건물 밖으로 나가면 꽃 정원이 펼쳐져 산책이나 휴식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다.

또한, 이번 신청사 건립과 함께 익산시청 역사상 처음으로 '직장어린이집'이 문을 열었다. 어린이집은 소음 차단과 안전을 위해 본동과 떨어진



단독 건물로 지어졌다. 덕분에 직원들은 출퇴근길에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아이들은 독립된 공간에서 마음껏 뛰어놀 수 있게 됐다.

◆ 물리적 칸막이 걷어낸 '혁신 사무실'...일의 즐거움이 곧 시민 행복

업무 공간 역시 최근 행정 트렌드에 맞춰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했다. 과거 부서마다 굳게 닫혀 있던 문과 높은 벽은 신청사에서 찾아볼 수 없다. 한 층이 통으로 열려 있는 '개방형 사무실' 구조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부서 간 경계는 캐비닛으로만 구분 지어, 조직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유연하게 공간을 바꿀 수 있다.

벽과 문을 없애고 탁 트인 공간에서 물리적인 장벽이 사라지니 업무 협업은 더 빨라졌고, 수직적인 분위기 대신 수평적인 소통 문화가 자리 잡기 시작했다.

실내 환경도 쾌적해졌다. 벽면 곳곳에는 살아있는 식물이 자라는 '수직 정원'이 설치돼 상쾌한 공기를 제공한다. 10층은 신청사의 백미로 꼽힌다. 직원 복지를 위한 무인 카페와 도시 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구내식당이 배치됐다.

탁 트인 익산 시내 전경을 내려다보며 식사하고 휴식할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층을 직원들에게 내어준 데는 공무원의 업무 만족도가 곧 시민들에게 제공하는 행정 서비스의 질로 이어진다는 믿음이 담겨있다.

◆ 710면 주차장 확보와 지중화 사업... '시민

접근성이 최우선' 고질적인 문제였던 주차와 보행 환경도 획기적으로 개선됐다. 시는 신청사 지하 1·2층 주차장과 인근 주차 타워를 합쳐 총 710여 면의 넉넉



한 주차 공간을 확보했다. 이 중 본청 지하 1층의 80여 면은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으로 지정했다. 해당 구역은 엄격한 관리가 이뤄져 시청을 찾는 시민들이 주차 자리를 찾아 헤매는 일이 없도록 배려했다.

전기차 충전 구역은 화재 안전을 고려해 모두 지상 1층에만 배치했다. 또한 주차장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직원들은 주차 '홀짝제'(홀수 날에는 홀수 번호 차량만 이용)를 시행하며 시민들에게 주차 자리를 양보하고 있다.

청사 주변 환경도 몰라보게 달라졌다. 주변 도로를 넓히고 보도를 정비해 시민들이 안전하게 걸을 수 있도록 했으며, 지지분하게 엮여 있던 전선과 전신주를 땅 밑으로 깔끔하게 묻는 지중

화 사업을 진행했다. 빼죽빼죽 튀어나온 전봇대를 없애고 하늘을 깨끗하게 비워낸 덕분에 신청사 주변은 한결 쾌적하고 안전한 거리로 탈바꿈했다.

◆ 나눔이 꽃피는 청사...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익산'

익산시 신청사는 단순히 멋진 건물을 넘어, 사회적 약자와 공존하는 따뜻한 가치를 담고 있다. 시청 1층에는 발달장애인 바리스타들이 정성껏 빵을 굽고 커피를 내리는 '베이커리형 카페'가



자리 잡았다. 장애인들에게는 소중한 일터를, 시민들에게는 향긋한 휴식처를 제공하는 상생의 공간이다.

건물 4층에는 어르신이 근무하는 편의점이 입점했다.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추진된 이 편의점은 노인에게 삶의 활력을, 시청을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들에게는 편리함을 선물한다. 일자리를 얻게 된 시민도 즐겁고, 그 서비스를 이용하는 시민도 미소 짓는 곳, 이것이 익산시가 신청사를 통해 보여주고자 하는 미래의 모습이다.

이제 시는 앞으로 신청사 주변 광장을 활용해 시민을 위한 작은 공연이나 주말 장터 등 다양한 문화 행사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해 신청사를 명실상부한 시민의 거실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관청 청(廳) 자의 의미처럼, 신청사는 이제 단순히 행정 업무를 보는 공간을 넘어 시민의 작은 목소리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귀하게 담아내는 소통의 전당이 될 것이다.

정현을 익산시장은 "56년 만에 완공된 신청사는 단순한 공무원들이 일하는 건물이 아니라, 주인인 시민들이 언제든 찾아와 쉬고 즐기는 시민 중심 공간이 될 것"이라며 "새로운 집에서 더 낮은 자세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익산의 새로운 100년을 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